2019년도 「도서관직원국외연수-1기」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2019. 5. 12.(일) ~ 5. 20.(월), 7박 9일

네덜란드(School 7, 디오케이 중앙도서관, 델프트 공학 대학교 도서관, 로테르담 도서관)

벨기에(데 크루크 도서관, 유토피아 : 공연예술을 위한 도서관·아카데미, 쿡앤북)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문화과

목 차

Ⅰ. 교육 개요 ····· 1
1. 교육 개요 ····· 1
2. 교육 성과 ····· 1
3. 방문 국가 및 기관 ····· 3
4. 교육일정 ····· 4
5. 분임편성 및 역할 ····· 5

Ⅱ. 기관방문교육 ····· 6
1. School 7 ····· 6
2. 디오케이 중앙도서관 ····· 20
3. 델프트 공학 대학교 도서관 ····· 31
4. 로테르담 도서관 ····· 35
5. 데크루크 도서관 ····· 45
6. 유토피아 : 공연예술을 위한 도서관 · 아카데미 ····· 57
7. 쿡앤북 ····· 68

참고1 교육생 한줄 소감 ····· 74
참고2 도서관직원국외연수 관련 “School7” 의 홈페이지 게시글 ····· 78

1 교육 개요

【 교육 목표 】

○ 국외현장교육을 통해 **국제적 최신동향 파악 및 사서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다

○ **변화하는 도서관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서비스를 기획** 할 수 있다

1. 교육 개요

○ 기　간 : 2019. 5. 12.(일) ~ 5. 20.(월), 7박 9일

* 도서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교육과정

○ 장　소

- **네덜란드**(School 7, 디오케이 중앙도서관, 델프트 공학 대학교 도서관, 로테르담 도서관)
- **벨기에**(데 크루크 도서관, 유토피아 : 공연예술을 위한 도서관·아카데미, 쿡앤북서점)

○ 참석자 : 각종 도서관 직원 36명(교육생 34명, 운영자 2명)

○ 교육내용 : 도서관 역할변화와 서비스 확대를 관한 특강 및 방문교육, 현장체험 등

- 사전교육 실시('19. 4. 26.) : 교육과정안내, 분임편성, 안전관리사항, 특강 등

2. 교육 성과

① 현장강의 및 견학을 통한 국외 도서관 최신동향파악 및 사서 역량 강화

- 21세기를 접어들면서 유럽의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수 감소 등 도서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용자 중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함
-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 · 도서관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콘텐츠와 액티비티를 담는 공공 공간으로 <u>일상을 도시로 확장하고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도시의 거실</u>, 소셜허브임. 더불어 거실처럼 편안한 도서관 공간은 여러 활동의 촉진제(독서, 문화활동, 대화, 학습 등) 역할을 함
  - · **지역사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공간**(school7, 유토피아도서관 등)

- **일상생활의 밀착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 · 지역주민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기 위해 도서관은 도심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며 색다른 활동(까페, 식당, 수업, 쇼핑몰, 공연장, 법률상담, 결혼식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환
  - · 반대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외곽에 위치한다하여도 내부공간, 동선, 건물배치의 유연성 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는 도서관이용률 증가와 더불어 해당 지역을 다시 살리는 선순환의 역할**을 함

    : 도서관 증축 → **이용자 증가** → 행정기관의 지원활동 증가(결혼 주례사 상주, 법률상담소 설치) → **이용자 증가**
  - ·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돌하는 요구**(조용함 대비 소음, 질서 대비 혼잡함, 개방 대비 보안 등)들을 **조율**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건축기법**(소음방지 벽지, 방음문 등) 및 **도서관 속의 도서관 즉 공간 분리, 층별 분리** 등을 활용

- **협업과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기능 확대**
  - ·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지역대학과 나노기술 협업 단체(IMEC)와 협업한 결과, 도서관은 여러 종류의 신기술을 실험하고 도서관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신기술의 베타테스터 역할을 함

- **모두의 즐거움을 위한 공공의 공간, 도서관**
  - · 방문도서관 인터뷰 내용 中

> · School7 "도서관 개관 당시 많은 주민들과 함께 상호 축하를 하였다.
> 이 도서관을 통해 주민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무척 행복하다"
> · **로테르담도서관** "결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행복한 그들을 보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이다"
> · **데크루크도서관** "나는 이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행복하고 기쁘다"

  - · **도서관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개인(이용자, 사서 등)의 즐거움**이며 그 즐거움의 가장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그룹은 "사서" 여야 한다는 점의 시사점이 큼

② 역사문화탐방을 통한 애국정신 함양 및 역사의식 고취

← 이준 열사 기념관

← 안네 프랑크의 집 (안네의 일기 집필장소)

3. 방문 국가 및 기관

국가	도시	방문기관	기관개요
네덜란드	덴 헬더	**School 7**	ㅇ **2018 IFLA 올해의 공공도서관 선정** ㅇ 폐교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공공 도서관으로 전환, 단순 도서관을 넘어 **지역유산과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주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도서관** ㅇ 네덜란드 건축가 에블린 판 페인(Evelien van Veen)과 건축 스튜디오 West 8, Mars interieurarchitecten 디자인
	델프트	**디오케이 중앙도서관**	ㅇ 네덜란드에서도 혁신적인 도서관으로 꼽히며, 책이 아니라 '사람이 컬렉션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는 도서관**으로 운영
		델프트 공학 대학교 도서관	ㅇ **2013년 CNN travel 선정 아름다운 도서관 4위** ㅇ 책이 보관되는 정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책을 통해 학생과 연구자들이 만나고 지식을 교류하는 공간으로 구성 ㅇ 지붕 한가운데의 뾰족한 원뿔은 도서관의 상징물로 주변 풍광과 어울리며 **에너지 절약과 건축학적인 아름다움을 잘 소화하여 1998년 네덜란드 국가 철강상 수여**
	로테르담	**로테르담 도서관**	ㅇ **지역사회 커뮤니티 거점으로 문화적 혜택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개방적인 문화 공간** (시장, 광장, 도시의 거실이자 발코니, 아이들의 놀이터, 소통과 담론의 장으로 활용)
벨기에	겐트	**데크루크 도서관**	ㅇ **2017년 BBC 아름다운 도서관 선정** ㅇ '세상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도서관의 목적으로 **책과 노하우, 문화와 기술을 한번에 경험할 수 있는 겐트지방의 혁신 도서관** ㅇ 지역도서관의 기능 확장을 위해 유관기관 (IMEC (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er),겐트 대학교)과 협력한 사례
	알스트	**유토피아** :공연예술 도서관·아카데미	ㅇ **지역사회 문화와 공동기증의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운영되어지는 공연예술 특화도서관 ㅇ 기존 건물 유산의 확장으로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 도서관 등으로 설계
	브뤼셀	**이색 서점 "쿡앤북"**	ㅇ **다채로운 문화·예술과 라이프스타일의 융합** (서점, 레스토랑, 카페) ㅇ 1500㎡의 전체 공간을 9개 주제 섹션으로 나누어 각각 창의적 공간으로 구성

4. 교육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시간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인물 (직책포함)
5. 12(일)	인천	암스 테르담	KE925	14:05 ~ 18:55		인천 출발 암스테르담 도착	
5. 13(월)		덴헬더	전용차량	10:00 ~ 18:00	School 7	· "IFLA 올해의 공공도서관" 선정기관 견학 및 벤치마킹	Jacinta Krimp (관장)
5. 14(화)		델프트	전용차량	10:00 ~ 12:00	디오케이 중앙도서관	·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의 도서관의 역할 조사	Simone Heirman (홍보 담당자)
				14:00 ~ 16:00	델프트공대 도서관	· 친환경/에너지 절약 도서관의 건축학적 요소 파악	Ir. W.J.S.M. (Wilma) van Wezenbe (Director, Learning Center)
5. 15(수)		로테르담	전용차량	10:00 ~ 18:00	로테르담 도서관	· 국민의 일상생활 밀착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 조사	Theo C. M. Kemperman (관장)
5. 16(목)		겐트	전용차량	10:00 ~ 18:00	데크루크 도서관	· 지역민 독서활동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지역도서관과 유관단체의 협력 사례 조사	Krist Biebauw (관장)
5. 17(금)		알스트	전용차량	10:00 ~ 18:00	유토피아 도서관	· 특화도서관의 조성/운영 프로그램 사례조사	Arnoud Van Der Straeten (관장)
5. 18(토)		브뤼셀	전용차량	10:00 ~ 18:00	이색서점 쿡앤북	· 라이프스타일 융합 인테리어를 통한 창의적 도서관 공간 디자인 적용 요소 조사	Claudia Trucco (홍보 담당자)
5. 19(일)		암스 테르담	KE926	21:20		암스테르담 출발	
5. 20(월)	암스 테르담	인천	KE926	15:05		인천 도착	

5. 분임편성 및 역할

분임	성명	소속기관	근무처	역할	비고
1	권연주	강원도	홍천 연봉도서관	**School7** 방문교육 보고서 작성	
	김장훈	경기도	포천시립중앙도서관		
	박은주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분임장
	손주미	외교부	외교부		
	진민들레	충청남도	청양군		
2	강윤정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디오케이 중앙도서관** 방문교육 보고서 작성	분임장
	김현경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노은미	전라남도	고흥군립도서관		
	유희영	외교부	외교부		
	채명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3	곽민정	충청남도	아산시 중앙도서관	**델프트공대 도서관** 방문교육 보고서 작성	
	안중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분임장
	윤관규	강원도	횡성군립도서관		
	이미정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임인숙	전라북도	무주군청 도서관팀		
4	김경호	경기도	매여울도서관	**로테르담 도서관** 방문교육 보고서 작성	분임장
	김주란	충청북도	청주시립도서관		
	안종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장효승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이정	강원도	강릉시립도서관		
5	강인순	문화재청	문화재청 기록관자료실	**데크루크 도서관** 방문교육 보고서 작성	분임장
	김이경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김현주	외교부	국립외교원 도서관		
	서혜옥	전라북도	전주시립도서관		
	조윤숙	경기도	안양시 석수도서관		
6	권자영	경상북도교육청	청도도서관	**유토피아 도서관** 방문교육 보고서 작성	
	노혜영	외교부	외교부		
	설경숙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선영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정봉숙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분임장
7	노윤희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중앙도서관	**이색서점 쿡앤북** 방문교육 보고서 작성	분임장
	송영기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장보미	제주특별자치도	우당도서관		
	최위호	충청남도	공주시		

Ⅱ 기관방문교육

스쿨 7
(School 7)

강원도 홍천연봉도서관 권연주
경기도 포천시립중앙도서관 김장훈
국립중앙도서관 박은주
외교부 손주미
충청남도 청양군 진민들레

1. School 7

○ **개　요**

- 2018 IFLA 올해의 공공도서관 선정
- 'School 7'이라는 폐교를 개조하여 지역유산과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주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2016년 개관
- (예산) 4개주에서 재정적 지원(덴 헬더 주에서 주는 것은 덴 헬더 주에서 사용)
- (인원) 매주 약4천명 이용, 직원 35명
- (서비스 대상) 어린이, 성인, 시니어, 이민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등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서비스
- (이용시간) 월~금 10:00~20:00/ 토 10:00~16:00(일요일 휴관)
- (이용방법) 유료회원제(18세 이상~65세 미만),18세 미만 무료, 65세 이상 할인

○ **방문일정**

- 일　시 : 2019. 5. 13.(월), 10:00~
- 장　소 : 덴 헬더(Den Helder) School 7 공공도서관 (KopGroep Bibliotheken의 소속 도서관)
- 면담자 : Jacinta Krimp(관장), Anita Ruder(PR en Communicatie 부서장)

□ 주요특징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

- 덴 헬더의 경제적 근간이었던 조선소가 지역을 떠나면서 높은 실업률과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
- 전 해군 기지와 항구 지역에 인접한 베아트릭스 스트라트(Beatric straat)에 위치

○ **폐교를 개조하여 지역주민의 거실 같은 공간**

- School 7은 1905년도에 세워진 학교로 학생 수의 감소로 오랫동안 폐교되었다가 2016년 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 이자 '거실의 의미'
- 기존의 학교 이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의 위치 및 상징성을 인지하기 쉽게 함
- 남녀노소, 국적과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School 7에서는 책을 읽고, 대여하고, 언어를 배우고, 일을 하고,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

-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 내 카페는 만남의 장소가 되고, 생일파티를 할 수도 있으며, 극장에서는 결혼식도 가능

○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School7**

-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하고 실행하여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도서관을 구현
- 옛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최대한 옛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보존하여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배려

□ 서비스 공간구성

○ **과거와 현재의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조화**

- 외벽, 교실, 복도, 다락, 창문, 화장실 구조까지 고스란히 남겨 두어 단순히 리모델링한 공공도서관이 아닌 옛 학교의 공간을 최대한 보존한 멋진 제3의 공간이 되었음.
- 인접 건물을 부수고 도서관으로 확장 리모델링하면서 없어진 공간은 바닥 카페트에 사진으로 남겨두어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공간으로써의 도서관을 섬세하게 표현하였음.

○ **옛 공간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구현**

- 창문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어 도서관임을 알 수 있게 설계.
- 도서관 정 가운데 나무 계단은 학교 바닥을 떼어 만들었고, 건물의 외벽을 그대로 두고 외부의 새로이 공간을 만들어 부족한 공간을 보강
- 과거, 학교의 화장실이었던 공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PC 및 노트북 사용, 아이들의 비밀스런 독서 공간, 게임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변신
- 어린이 위한 낮은 열람대, 편안한 빈백 및 쇼파에 앉아 책을 볼 수 있는 아기자기한 공간
- 넓은 창을 통해 주변을 조망하면서 책을 열람할 수 있는 편안한 거실 같은 열람실 및 워크샵,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회의실
- 방송통신대 수업을 할 수 있게 공간 대여, 이민자를 위한 언어 수업,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

School 7 의 공간구성

□ 서비스 내용

○ 이용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고려

- 어린이들의 신장에 맞춘 열람대, 편하게 빈백에 앉아 책을 보거나 간단한 게임도 즐길 수 있는 작은 방
- 지역 주민들이 다과와 담소를 즐길 수 있는 모던한 카페, 넓은 창을 통해 주변을 조망하며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코너, 회의 및 생일파티, 결혼식, 공연을 위한 공간
-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휠체어가 다닐 수 통로, 교통 약자를 위한 도서 배달 서비스

○ 쉬운 도서 분류 및 홍보로 열린 도서관

- 모든 연령대의 이용자가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별, 52개의 주제별로 서가를 나누고, 기호(그림)으로 쉽게 책을 분류

분류표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로 도서 대출 예약 및 배달 서비스 이용 가능, 전자책 이용 가능

- 임산부에게 베이비키트를 주어, 부모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 교육

- 유료회원제 공공도서관이지만 만 18세까지는 무료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이용을 독려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많은 프로그램 운영, 연령별 독서 팁 제공
- MLP 프로그램[1]으로 독서의 어려움을 가진 8-12세 아동, ADHD 아동에게 집중력 향상을 위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도서로 독서치료
-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위한 언어 강의
-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해 컴퓨터 교육,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세부 조사내용

○ 주변 환경과 지역문화와의 상호작용

- 단순히 도서관이 책을 읽고 대여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넘어, 도서관에서 강의를 듣고 워크샵에 참여 할 수 있는 열린 공간
- 생일파티, 연극 공연, 요가, 결혼식 등 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
-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방송통신대나 단체에게 회의실 대여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통하는 도서관

- 북스타트를 시작으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연령별 다양한 프로그램
  * 0-6세 : 북스타트, Bereslim(3세-7세 사이의 어린이와 부모, 교사 대상. 재미있고 교육적인 게임을 하고, 아름다운 그림책을 볼 수 있음), 독서 교육, 어린이 전자책 등이 있음.
  * 6-12세 : 읽기 쉬운 상위 25(스스로 책을 가져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어린이에게 적합), MLP 프로그램, 독서 팁 제공
  * 12-15세 : 12세이상은 독서 수준과 학교 유형에 맞는 책을 고를 수 있게 3개의 레벨 목록 제공, 독서 팁 제공
  * 연령별 인기 도서 분류 : 0-6세, 6-9세, 9-12세, 12-15세, 15-18세로 구분
  * 독서 요령 및 초등학교 과목을 온라인으로 연습 가능

1) MLP(Easy Reading Square) : 8-12세의 독서에 문제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ADHD와 같은 집중력 장애 아동이나 언어 부족 아동은 독서의 어려움이 있음. 그들에게 도서관에서 재미있고 흥미롭고 읽기 쉬운 책으로 치료.

- 새로운 시민들을 위한 읽기 및 쓰기, 듣기, 말하기의 언어 교육, 시니어를 위한 컴퓨터 교육 및 인터넷 뱅킹, 개인에게 어려운 세금 문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책 배달 서비스 등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고,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

○ **편리한 도서 분류 및 다양한 방법의 자료 접근**

- 주제를 52개로 분류한 후 그림과 키워드로 쉽게 찾을 수 있음
- CD 500,000종 / DVD 30,000종 / LP 300,000종 / 오디오북 2,500종 e-book 12,000종 / 베스트셀러 60권(매주 선정 : 관련 서적사이트 참고)을 홈페이지에서 예약 및 대출 신청 가능
- 서가 벽면의 자료검색기 및 자료실의 컴퓨터로 자료의 검색 및 숙제 등을 할 수 있음.

○ **패키지 요금 선택 가능**

- 만 18세까지는 무료, 만 65세 이상 할인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성인은 4가지 요금 유형(25~61유로) 중, 원하는 패키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소셜 미디어(페이스북, Twitter, Pinterest, Instragram)를 통한 홍보, 도서관 가이드 투어 운영(도서관직원국외연수 1기 사진 게재 되어 있음, 붙임2 참조) 등 도서관의 편리한 이용 및 홍보

□ 질의 · 응답

○ **도서관 이름이 School 7 인데 이유가 있나요?**

- 원래 같은 이름의 학교가 있던 곳으로 높은 실업률과 인구 감소로 폐교되어, 예술가가 일시적으로 쓰기도 하는 등, 여러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가 덴 헬더 주택 협회에서 사들여 공공도서관으로 개조하기로 했고, 본래 이름 그대로 도서관 이름을 지음

○ 폐교를 개조하는데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이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소통하며 환경과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20~30년 후에도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옛 것과 현재를 잇는 소통의 창구이자 지역주민들의 가장 안락하고 편한 '도시의 거실' 기능에 중점을 두었음.
- 공간을 효율적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실(요가, 결혼식, 방송통신대 수업 등), 카페는 생일파티, 극장은 결혼식을 할 수 있음.
- 비용은 대략 80억(인테리어 13억), 주택보증공사와 다른 기관에서 모든 예산 지원. 35개중 입찰업체 중 네덜란드 건축가 에블린 판 페인(Evelien van Veen)과 건축 스튜디오 West 8, Mars interieurarchitecten 디자인 선정

○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는데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 도시의 대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폭파됐지만 이 건물은 생존하였음. 해군기지 및 시내를 재건했고, 이곳을 도서관으로 만들면 '이곳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교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지역 주민들을 천천히 설득하였음. 왜 도서관을 짓는데 소중한 세금을 써야하는지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12년) 도서관이 생긴 이후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으며, 작년 수상 이후 지역 주민들이 자랑스러워 함.

○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시 가장 고려한 사항은?

-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옛 건물을 최대한 보존하며 서비스 공간을 구성하는데 애씀. 지붕을 보존하면서 통로를 만들고 붕괴를 막기 위해 철제 고정, 장애인을 고려하여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외벽, 교실, 복도, 다락, 창문, 화장실 구조까지 고스란히 남겨 두었고, 밖에서는 내부를 볼 수 있게 하여 도서관임을 알 수 있게 하였음.

○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페, 극장의 소음 문제는 없는지?

- 천장에 특수종이를 녹여서 만듦. 단가가 비싸고 설치가 어려웠으나 소음을 흡수하여 공연이나, 결혼식, 문화행사 가능하도록 구현

○ **책의 분류 방법이 흥미롭다. 이유는?**

- School 7은 어린이를 가장 중점을 두고 서비스하며 어린이도 연령별로 나누어 열람대 및 작은 방의 공간을 구성했고, 책을 쉽게 꺼내 볼 수 있도록 그림과 키워드로 분류함. 또한 북스타트로 임산부에게 베이비 키트를 선물하여 자연스럽게 부모와 함께 도서관에 올 수 있도록 함.

베이비 키트

북스타트 코너

○ **유료 공공도서관인데 이유는?**

- 지역주민 인구 감소 추세로 인해 유료 회원제 실시. 이것 또한 주민들의 동의로 실천할 수 있었으며, 2016년 개관이래 회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단, 18세까지는 무료, 65세 이상은 할인, 성인은 1년에 25~61 유로로 원하는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음.
- 방송통신대의 경우 대학 캠퍼스가 없음. 도서관 협업을 통해 유료로 공간 대여. 단, 대상에 따라 무료도 있음.

○ **책의 보존은 어떻게 하는지?**

- 책의 보존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며, School 7에서는 책의 보존보다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바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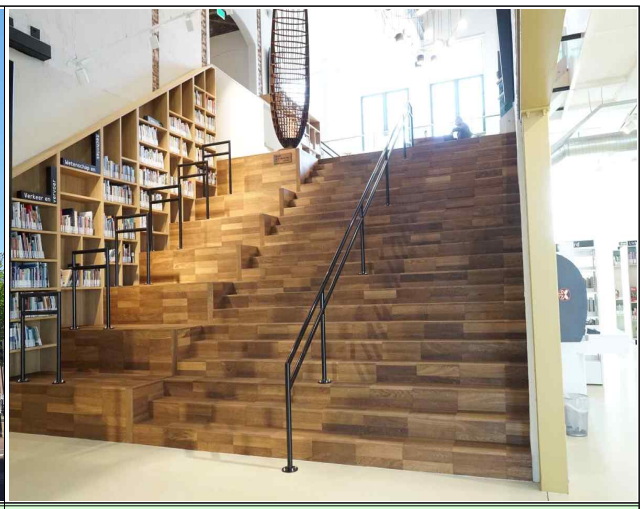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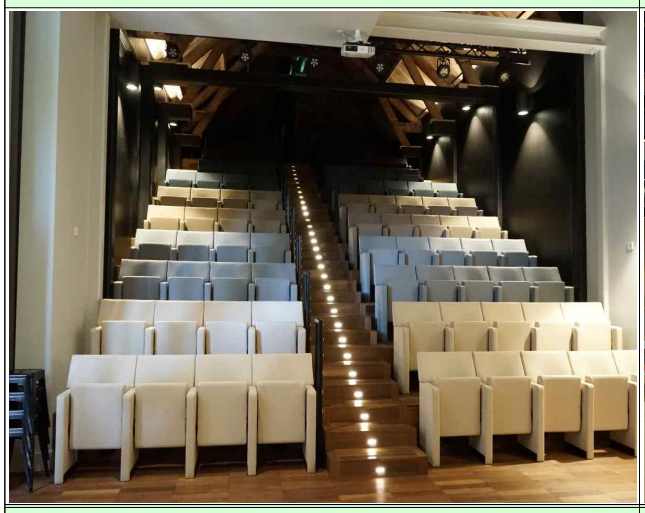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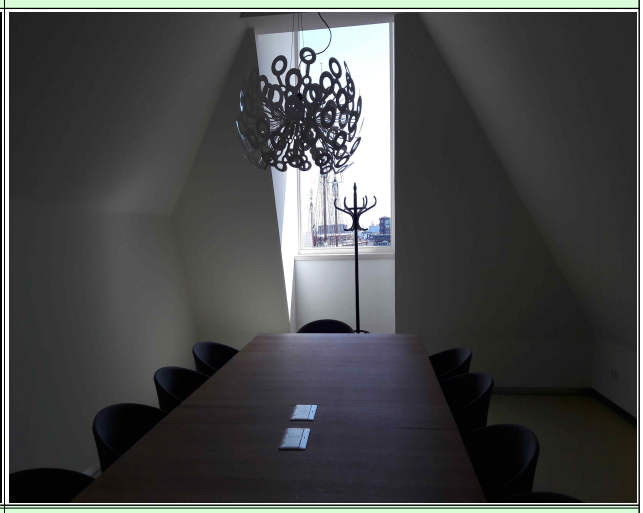
□ 시사점 및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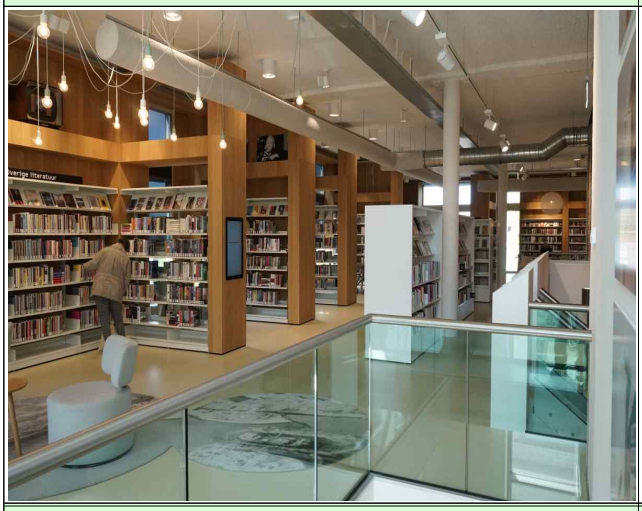
○ 폐교를 활용한 가장 훌륭한 例인 School 7. 옛 학교 건물을 보존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멋진 공공도서관으로 탈바꿈하여 과거와 현재의 부드러운 조화가 멋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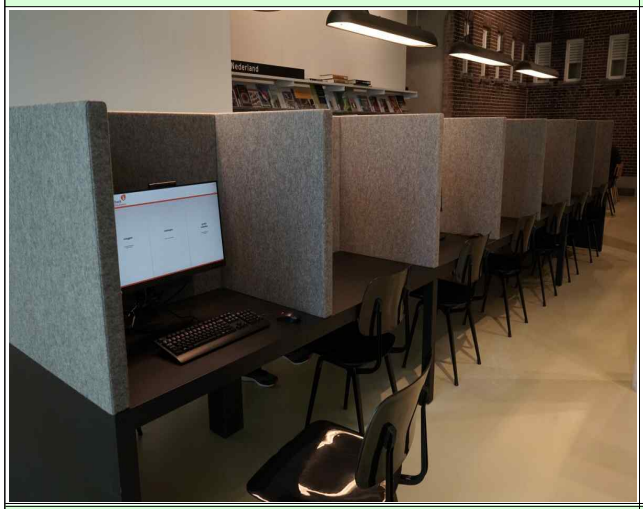
○ School 7을 방문하기 전에는 무엇이 다르기에 '2018 IFLA 올해의 공공도서관으로 선정' 될 수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와 보니 공간 하나 하나, 자재 하나 하나 옛 것을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도서관임을 알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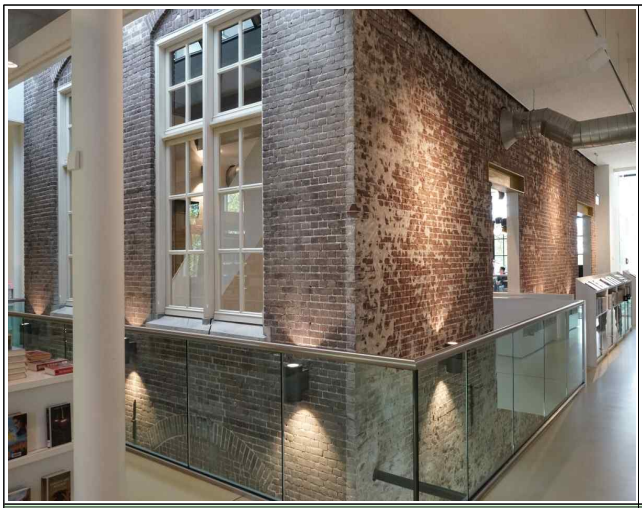
- 오랜 기간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관장님의 말씀이 인상적. 빠름이 때로는 느림을 이길 수 없는 것인가!
- 도서관 공사 중 조류환경협회에서 새끼 새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 그 어린 새가 다 성장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요구했고 이 제안에 응해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결국엔 잘 마무리됐다는 일화가 있는데, 이것은 school 7이 더 완벽하게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임.
  이렇게 소수의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모두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최대한 반영해서 12년의 오랜 사업기간이 걸렸지만,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시민의식은 우리가 크게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됨.
- 도서관 내 카페에서 Jacinta Krimp 관장과의 조별인터뷰를 진행할 때 같은 테이블에서 지역 주민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고, 이 모든 것이 허용되는 도서관이 부러웠음.
- 도서관 직원들이 근무 하는 공간을 전면 투명 유리창으로 시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이 열린 공간이며 직원들과도 편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의미가 한층 더 부각됨.

□ 관련 사진

	
School 7 전경	도서관 정가운데 나무계단
	
극장(결혼식장으로도 활용)	도서관내 카페
	
소강의실	회의실

도서관장님 강의	유아 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일반 자료실 (서가벽에 도서검색기)	과거 외벽을 살린 자료실

일반 자료실	일반 자료실
	
일반 자료실	칸막이와 카페트에 과거사진
개인 열람 공간 1 (과거 화장실)	개인 열람 공간 2 (과거 화장실)

	
과거 건물 외벽	천장(소음방지 종이 부착)
천장 틀	과거 건물의 창문틀
2018 IFLA 올해의 공공도서관 상장 옆에서 관장과 함께	2019년 도서관직원국외연수-1기

디오케이 도서관
(DOK Delft Library Concept Center)

국립중앙도서관 강윤정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김현경
전라남도 고흥군립도서관 노은미
외교부 유희영
국사편찬위원회 채명만

2. 디오케이 중앙도서관

○ **개요**

- 명칭 : DOK 중앙도서관(Bibliotheek DOK Delft, Centrum)
- 주소 : Vesteplein 100, 2611WG Delft, Netherlands
- 웹사이트 : http://www.dok.info
- 개관시간
  : 월-금요일(10:00-23:00), 토요일(10:00-18:00),
  일요일 휴관(단,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13:00-18:00)
  * 고객서비스센터는 21시까지 운영하며, 이후 시간은 안전요원만 배치
- 소장자료 : 도서 120,000권 및 오디오북, 전자서적, 잡지, DVD 등
- 자료대출 : 연간유료회원제, 회원권의 종류에 따라 대출권수 결정,
  * 대출기간 : 도서 4주, 전자책 3주 (※ RFID시스템 구축)
- 예산 : 델프트시의 재정적 지원 및 자체 수익사업 운영
- 인원 : 도서관 전체 직원수 5-60명(사서직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서비스 대상 : 지역주민 대상(전 연령) 유료 회원제로 운영

○ **방문일정**

- 일 시 : 2019. 5. 14.(화), 10:00~
- 장 소 : 네덜란드 델프트시 소재 디오케이 중앙도서관
- 면담자 : Simone Heirman(홍보 담당), Maaike Ganssen(교육 담당)

□ 주요특징

○ 방문자 급감으로 인해 '어떻게 도서관이 변해야할까'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비슷한 고민을 하던 델프트 문화센터와 합병하여 리모델링한 후 '18. 8월 재개관

○ 전통적 도서관의 기능 외에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 도서관의 직원들은 전통적 사서의 역할보다는, 지역주민간의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

○ 도시의 광장 및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과 동선을 연결해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접근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설계

○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도서관 영역 확대

- 기존 도서관의 기능에 문화센터, 음악학교, 카페테리아 등의 기능을 혼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

○ 카페테리아 운영
- 다양한 문화권을 가진 요리사를 고용하여 다양한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권을 알아갈 수 있음
- 요리사가 사용하는 식재료를 전시하여 이용자들의 흥미를 돋움

○ 유료 회원제 운영
- 요금제에 따른 대출권수 상이(아동 최대 6권, 성인 최대 12권)

□ 서비스공간구성

○ **(위치)** 지하 주차장 위의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극장, 미술관 등 문화지구, 상업시설, 주거지 등과 인접하여 위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접근 가능

○ **(공간구성)** 카페테리아, 무대 공간 및 2층과 연결되는 계단 겸 객석, 성인 열람실, 아트리움 라운지, 댄스 스튜디오, 미술실, 도자공예실, 유·아동 열람실, 게임룸, 회의실 등으로 구성
- 입구에서 가장 먼저 이용자를 맞이하는 카페테리아에서는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자유롭게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거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도서관을 더욱 편안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역할
- 레슨을 받는 공간은 투명 유리로 밖에서도 보이게 하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자극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서가 위쪽 공간을 지역 활동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함.
- 유·아동을 위한 공간은 책장에 바퀴를 달아 공간을 변형·활용하게 하고, 책장 내 소파공간을 만들어 모양을 변형 가능하게 하는 등 아이들에게 즐겁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설계
- 그림을 다루는 공간은 공기순환, 채광, 온·습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등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문화 수업 프로그램을 수용토록 고려
- 자료실 안에서도 프로그램실을 볼 수 있도록 유리 창문을 제작하여 프로그램 홍보와 프로그램 수강을 하고 싶은 자극을 줌

- 대출반납기 내부를 투명 유리로 제작하여 사서가 하는 일을 직접 보고 도서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여줌
- 단순한 활동실 이름을 책 서명으로 표기함으로써 도서관과 책을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함

○ **층별 배치도**

구분	구성	비고
0F	- 성인자료실 - 스튜디오와 무대 - 카페테리아 - 안내카운터 - 대출반납대	
1F	- 청소년자료실 (거북이정원, 해리포터법, 대도시, 청소년) - 신문과 잡지 - 스튜디오와 무대 - 대출대 - 탈의실 - 레스카페(간단한 음료만 제공)	
2F	- 스튜디오	

○ **도서관 서비스 공간 특징**

- **무대를 이용한 정기적 공연 및 이벤트 개최**

무대형 계단을 포함한 0층 중앙 로비와 1층의 아트리움 라운지에는 정기적으로 댄스파티와 공연 등 이벤트를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지원

- **카페테리아, 이용자와의 소통의 공간 역할**

여러 문화권에 있는 요리사를 배치하여 다양한 음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 나라 요리에 대한 소개까지 더하여 이용자와 소통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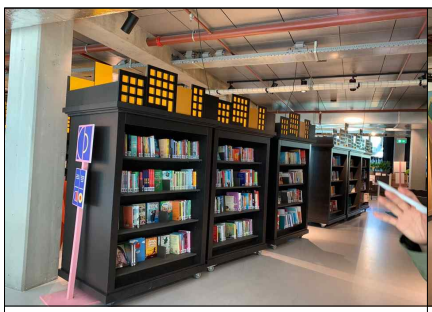
□ 서비스 내용

○ **이용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료제공 중심이었던 기존 도서관 기능을 벗어나 문화센터와의 합병으로 음악, 미술, 비보이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 그림, 공예 등 미술 체험 프로그램(직접 그림그리기, 도자만들기 체험이 가능하며, 미술작품의 감상 및 대여 가능), 발레 등 고전무용, 현대무용, 유·아동 대상 댄스 등 다양한 무용수업 프로그램, 악기 연주, 합창, 음악이론 및 음악사 수업 등 음악 관련 프로그램, 네덜란드어 또는 영어로 글쓰기(작문)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 다문화 이해 교육과정 등 다양한 과정 운영 중
- 유료로 수강 가능하며, 무료 강좌도 운영

○ **특히, 만 14세 이하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최대한 많은 문화적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내 여러 공간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 유·아동들이 스스로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아동 대상 독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며 학교와 연계하여 방과 후 숙제 지원
- **아이들이 직접 도서관 자료 분류기호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여 눈높이에 맞춘 분류기호를 제작하는 등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고자 노력**
- 유·아동 이용 공간은 책장에 바퀴를 달아 공간을 자유롭게 변형/활용하게 하고, 책장 내 소파공간을 만드는 등 아이들에게 즐겁고 편안한 공간이 되고자 노력


신규 제작한 어린이실 바퀴서가

서가 위의 깃발(분류기호색)

게임을 이용한 추천도서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별도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를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운영.
- 학교 등 외부기관 의뢰 시 맞춤 커리큘럼 제공 가능

○ **도서,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시청각자료 및 영상자료, 전자자료 등의 이용 및 대출이 가능하며, 미술작품도 대여 가능**
- 자료의 대출 등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금제 중 선택하여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도서관카드를 충전해서 이용하는 방식

○ **북스타트 운영**
- 1세 미만의 아기를 대상으로 패브릭 베이비북과 CD가 있는 노래책 또는 보드북이 들어 있는 북스타트 가방을 배부하여 조기 독서 장려 및 아기와의 유대감 강화

○ **어린이·청소년 연령별 자료 제공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 거북이정원(0~6세), 해리포터(6-9세), 대도시(9-14세) 등 자료를 3구역으로 분리, 이용자의 연령에 맞는 맞춤형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 독서프로그램까지 병행하여 운영

○ **하우스 서점 서비스**
- 대상 : 노령, 장기간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독립적으로 도서관에 올 수 없고 대신하여 이를 도와 줄 사람이 없는 사람
- 대출자료 : 소설 및 취미, 큰글자도서, 오디오북, DVD 등
- 대출기간 : 1인 20점, 4주~6주
- 운영 : 자원봉사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집으로 자료를 배달

○ 도서관 내 아트리움 라운지 공간을 이용해 댄스파티, 지역 비보잉 대회, 각종 공연 및 전시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 수시 개최

○ 카페테리아에서는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요리사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만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제공하며, 요리사들이 만든 다양한 음식과 문화에 대한 요리사들과의 소통도 가능

○ **이민자를 돕는 도서관**
-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와 문화 습득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제공

○ **도시를 대표하는 도서관**

- 도시를 상징하는 주제도서, 도시 화가의 작품 전시 코너 마련

○ **도서관 내 회의실 등을 유료 대관**

□ 세부조사내용

○ **방문자수 급감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도서관과 델프트문화센터의 합병으로, 기존 도서관의 기능에 문화센터의 다양한 예체능 교육프로그램을 더해 지역주민 누구에게나(특히 아이들에게) "매력적이고 즐겁고, 편안한, 오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하고자 리모델링을 거쳐 '18.8월 재개관**

-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조 변경(미술작품을 다루는 공간에는 온·습도 및 채광 등, 음악 수업 공간에는 방음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설계)

○ **"책이 아니라 사람이 컬렉션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단순히 책을 읽는 기존의 도서관이 아닌,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연, 전시 등 문화행사를 수시로 개최하여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자 노력**

- 도서관에서는 가만히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카페테리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권 출신 요리사들이 만드는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조용히 공부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조용한 열람실에 개인학습이 가능하며, 다양한 문화 과정에 참여하여 배울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 열리는 공연이나 전시회 관람도 가능
- **도서관은 조용히 있어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통하고 먹고 즐기고 배우고 쉬고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
- **(운영)** 델프트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있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정부의 영향력은 없는 편
- **(재정)** 델프트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도서관 자체적으로는 유료 회원제 운영/도서관 내 공간 유료 대관/유료 문화 프로그램 운영/외부기관 의뢰 시 맞춤 커리큘럼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창출

- **(인력)** 직원은 총 5-60명 정도이나, 사서직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자료관리/홍보담당/IT/문화프로그램 운영 담당 등 각각의 역할로 구분하며, 정부(델프트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어 공무원 신분이나, 임금의 결정 및 지불은 도서관 자체적으로 결정

  ※ 그밖에 약 12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 배달, 언어자원봉사(네덜란드어 학습) 등의 활동 중

○ **도서 배열 시 청구기호가 아닌 테마별 이미지 사용**

도서 배열 시 청구기호를 사용하는 대신 대분류 아래 세부 테마를 정해서 이미지로 자료를 정리, 테마별로 서가에 비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손쉽게 자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 **어린이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도서 키워드 분류 및 제작**

디오케이 중앙도서관에서만 유일하게 9-13세 어린이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도서 키워드를 직접 분류하고 제작하여 어린이 자료 운영

○ **어린이자료 중 해리포터 구역은 바퀴달린 서가를 이용하여 공간 활용**

바퀴달린 서가를 배치하여 언제든지 이동해서 자유자재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운영 프로그램별 맞춤형 공간 설계 및 관련 기기 설치**

미술 프로그램 운영 시 채광 및 환기까지 고려하여 설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악프로그램은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방음여부를 확인하여 소음으로 인한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 해소

□ 시사점 및 소감

○ 디오케이 중앙도서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지역 **복합문화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책을 읽는 공간이라는 **기존의 도서관 역할에 더해 이용자들에게 음악, 무용, 미술,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경험하고, 배우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들이 흥미를 갖고 방문하고 싶은 공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서가에 자료 배열 시 **청구기호 대신 테마별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세부 주제별 자료 배열을 탈피하고 이용자가 쉽게 자료를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우선의 자료 접근법 사용**하고 있었다.

○ 디오케이 중앙도서관에는 도서관 운영에 필수 인력인 사서가 배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이용자 급감으로 도서관의 활로를 모색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의 변화를 꾀하였다.

○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도 기존의 자료제공에서 벗어나 이용자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지역사회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관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관련 사진

도서관 전경

1층 로비 전경

무인 대출기기

카페테리아

자료실 전경

CD배가

자료실내 지역화가 작품 전시

이용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프로그램실 내부

분류표의 이미지화

이용자와 함께 만든 계단

활동의 특성을 이해한 공간구성
(빛이 투영되는 미술실)

중앙계단(공연장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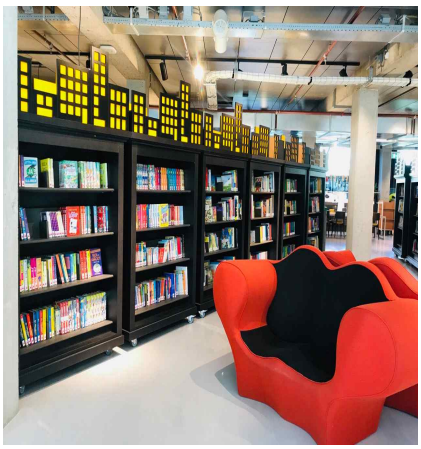
2층 전경

연속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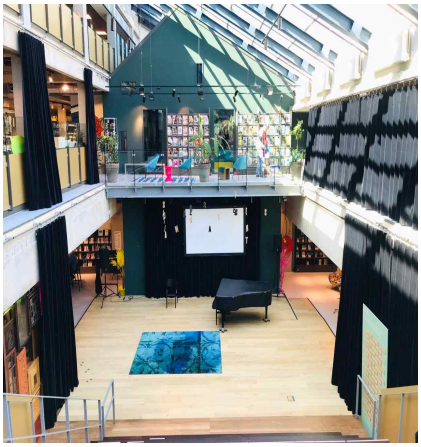
2층 열람실

어린이 전용 서가

어린이 자료실 전경



어린이 자료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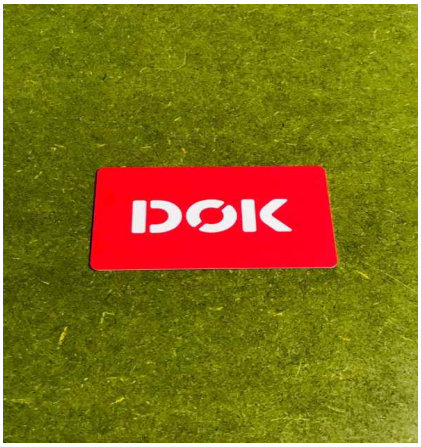
다목적홀

주제도서 대출 가방

이용자 작품 전시

2019년 도서관직원국외연수-1기

회원 카드 유료적립 기기



회원 카드

델프트 공학대학교 도서관
(TU Delft Library)

충청남도 아산시중앙도서관 곽민정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안중현
강원도 횡성군립도서관 윤관규
국립세종도서관 이미정
전라북도 무주군청도서관팀 임인숙

3. 델프트 공학 대학교 도서관

○ **개요**
- 건축연도 : 1997년 개관
- 건　　축 : 메카누 아키텍텐
- 건축양식 : 컨템포러리
- 건축재료 : 강철, 유리, 잔디
- 건축목적 : 델프트 공과대학 내 중앙도서관으로, 대학의 상징이자 지식의 요람

○ **방문일정**
- 일　시 : 2019. 5. 14. (화), 14:00~
- 장　소 : 네덜란드 델프트시 소재 델프트 공학 대학교 도서관
- 면담자 : Ir. W.J.S.M. (Wilma) van Wezenbe(Director Learning Center)

□ 주요특징

○ **네덜란드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건축그룹 메카누(Mecanoo)가 설계**
- 도서관의 내부는 지하에 위치하고 지붕은 5,500㎡의 잔디가 덮고 있어 주변공간을 하나로 통합시키며 내·외부를 연결함
- 책이 보관되는 정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책을 통해 학생과 연구자들이 만나고 지식을 교류하는 공간으로 구성
- 2013년 CNN travel이 선정한 아름다운 도서관 4위

□ 서비스공간구성

○ **도서관 전체를 하나의 우주공간과 로켓으로 형상화**
- 우선 바닥 한쪽이 위로 올라가 기울어진 평면을 형성하고, 그 위에는 학생들이 앉아서 좋은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커다란 잔디언덕을 조성
- 잔디지붕 밑의 공간을 도서관으로 구성하고 잔디밭 위에는 인상적인 백색의 유리 원뿔이 튀어나와 있고, 밤이 되면 마치 등대처럼 이 원뿔에서 빛이 새어나옴
- 원뿔은 아래로 계속 확장되어, 도서관 중앙 홀의 안내데스크 바로 위로 연결되고, 연장된 원뿔 밑을 비스듬한 열 개의 기둥이 지지하고 있는데, 꼭 우주선 발사 로켓의 뒷부분 같음

- 실내는 1층 중앙 홀이 가장 넓고 위층으로 올라 갈수록 좁아지는 나선형 구조로서 끝없이 팽창하며 연속적인 우주를 형상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식의 팽창이라는 함의까지 상징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음

□ 서비스 내용

○ **중앙도서관으로서 학생과 연구자들의 학습과 토론의 장**

- 넓은 중앙 홀은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4층까지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은 각 층별 열람실로 동선을 유도
- 도서는 대부분 홀 아래 중앙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으며, 컴퓨터 장치, 사무실, 서고는 중앙의 원뿔 아트리움 주변에 있는 오픈 공간에 놓여 있음
- 원뿔의 꼭대기에 뚫려 있는 채광창으로 인해, 낮에는 햇빛이 건축물 내부를 가득 채우면서 밝고 열린 학구적 분위기를 형성
- 각 층별 열람실이 모두 원형으로 배치되어 학습, 혹은 연구하는 학생과 이용자들이 자유로이 토론할 수 있도록 함

□ 세부조사내용

○ **친환경 / 에너지 절약 도서관의 건축학적 요소 파악**

- 자연채광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낮에는 건물 전체가 인공조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밝았음
- **도서관의 지붕을 잔디로 덮어 자연단열 효과를 높이고, 여름철에는 잔디와 토양이 머금고 있는 수분으로 건물의 온도조절 효과를 거둠은 물론, 넓고 푸른 잔디가 주는 심리적·미적·공간적 효과 등을 활용하고 있었음**

□ 시사점 및 소감

○ ‘모던하거나 혹은 클래식 하거나..’라는 일반적인 대학 도서관의 틀에서 벗어나 우주와 로켓의 이미지를 건축에 도입함은 물론 친환경적 설계를 통한 에너지 절감까지 유도한 이번 델프트공대 도서관 사례는 국내 대학은

물론 우리 도서관이 지향해야할 미래 모델에 관한 가치관 연구의 좋은 예라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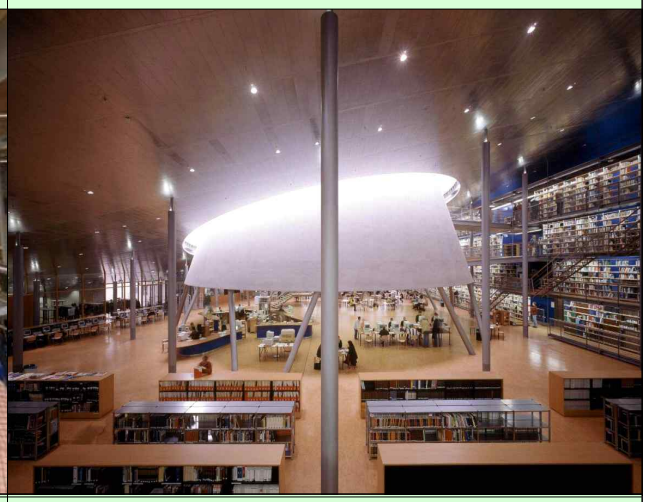
○ 도서관이 대학과 도시의 상징이 되고, 나아가 문화적 자산으로까지 발전해 유구히 남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였으며 이는 도서관에 몸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고민이 아닐까 함

□ 관련 사진

2019년 도서관직원국외연수-1기

도서관 서가 측면

자연채광의 원뿔통 열람석



도서관 실내

로테르담 도서관
(De Bibliotheek Rotterdam)

경기도 매여울도서관 김경호
충청북도 청주시립도서관 김주란
해양수산부 행정자료실 안종렬
국립중앙도서관 장효승
강원도 강릉시립도서관 한이정

4. 로테르담 도서관

○ **개요**
- 1983년 개관
- 유명 근대건축가인 반 덴 브룩과 바케마 공동 설계
  지역사회 커뮤니티 거점으로 문화적 혜택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개방적인 문화공간
  시장, 광장, 도시의 거실이자 발코니, 아이들의 놀이터, 소통과 담론의 장으로 활용
- 시로부터 연간 1,900만 유로 지원, 대관수입 13만 5천유로
- 19개의 분관 운영
- 직원 220명과 자원봉사 인력 200여명, 본관에 110명이 상주
- 서비스 대상 인구 65만명, 연간 300만명의 방문자

○ **방문일정**
- 일 시 : 2019. 5. 15.(수), 10:00~
- 장 소 : 로테르담중앙도서관
- 면담자 : Theo C.M. Kemperman(도서관장), Efine Pavilons(홍보 담당)

□ 주요특징

○ 소통과 담론의 복합지식문화공간 추구

- 도시의 거실을 테마로 하여 도서 공간, 메이커스페이스, 스터디룸, 뮤직홀, 극장 등 소통과 담론의 장으로 활용가능한 복합지식문화공간
- 계층별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과 소규모 결혼식장, 뮤직홀, 극장 등의 공간을 적극 임대하여 사람들의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

○ 도서관 운영단체 구성 및 독립 운영

- 지방자치단체와 도서관간의 관계와 역량에 대하여 법령으로 규정하여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단체가 감독이사회와 함께 설립되어 시와 분리된 독립 주체로서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음.

○ 공간 활용의 극대화 추구

- 배관을 건물 외부로 노출시켜 실내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
- 책장을 바퀴달린 책장으로 설치하여 다른 큰 활동을 위해 책장의 배치를 언제든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

□ 서비스공간구성

○ 개방형 공간 및 닫힌 공간의 조화로운 구성

- 지상7층(이용자 공간은 6층까지), 위로 올라갈수록 조용한 분위기 조성
- 중앙부를 원형으로 공개적인 공간 조성
- 중앙부는 소란스러운 반면 주변부는 조용한 공간
- 도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 및 열람좌석은 중앙부분에 배치
- 1층은 중앙부에는 전시공간, 무인 도서대출 데스크, 주변부로 카페, 극장, 음악, DVD감상실 등이 배치
- 2층은 에라스무스 체험 프로그램 공간, 결혼식장, 다목적실, 뮤직홀, 스터디룸, 테라스(카페) 등이 배치
- 3층 이상은 각종 자료와 열람좌석을 중앙부에 배치하고 주변부로 스터디룸이 배치되어 있음.
- 스터디룸,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다목적실, 뮤직홀, 카페, 극장 등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공간이 다수 마련
- 바닥에 카펫을 활용하여 생활 소음의 방지

□ 서비스 내용

○ 자료 대출

- 도서, 음반, 악보, 영화 DVD 등 83만여점의 자료 대출 반납 서비스

○ 문화프로그램

- 이민자 언어교육 프로그램, 에라스무스 체험 프로그램, 디지털 기술 프로그램, 소리내어 읽기 프로그램 등 유아 및 부모, 청소년, 노령인구 대상 문화프로그램 진행

○ 공간 대여 서비스

- 다목적홀, 극장, 스터디룸, 결혼식장 등을 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하는 서비스 시행

□ 세부조사내용

○ 로테르담중앙도서관의 역사

- 1604년 로렌티아나 교회 도서관이 기원, 네덜란드 가장 큰 공립도서관의 역할
- 19세기말 박물관 내 도서관으로 이전
- 1907년, 1923년에 새로운 건물로 각각 이전
- 1983년 현재의 위치인 로테르담 오트 110번지에 새롭게 개관
- 2013년 감독이사회의 설립과 함께 독립단체 출범

○ 로테르담 도서관의 지향점

- **모임, 만남** :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하여 방문객 증대
- **발견** : 다른 나라, 다른 인종을 만나고 자아의 재발견 기대
- **발전, 개발** : 지식과 정보 습득으로 자신과 지역의 발전에 참여
- **휴식과 즐거움의 공간** : 힐링과 즐거움이 있는 지역 주민의 공간

⇒ 자기주도적이며 자발적인 주인의식으로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며 적극적인 자기계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로테르담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 도서관 프로그램의 구성은 유아 및 부모, 청소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별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수행하고 있음.
-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1주 1회 이상 읽기 위주의 프로그램과 노래, 대화,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온라인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
- 청소년은 만12세에서 18세의 이용률이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청소년의 관심이 많은 분야(유튜브 스타, 스타트업 CEO)**의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청소년의 도서관 이용저조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함.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이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연구용역의 결과는 청소년들은 다만 관심주제가 다른 것뿐이었음)
-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은퇴 이후의 고독감과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도서관에서 만남과 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1주 1회 '디지카페'라는 IT기기 활용법 강좌를 비롯하여 3D프린팅, 원예, 도예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에라스무스 체험 프로그램(영구 운영 프로그램)**
  - · 네덜란드 출신의 인문주의자이자 수도사였던 에라스무스에 대한 컬렉션을 수집하고, 이를 스토리텔링하여 체험 공간을 설치, 이용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와의 협업으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이에 대한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음.
  - · 사랑, 종교 등 분야별 질문에 개인 식별 팔찌로 YES/NO를 선택하면 마지막에 에라스무스 AI와 1대1 채팅까지 가능한 프로그램
  - · 에라스무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가능한 이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에는 약 7억의 예산이 소요됨, 단 시스템은 단순하게 만들어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수정과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
- 도서관의 특별프로그램은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
- 도서관과 연구기관이 장기간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도서관이 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콘텐츠 생산자로서 영역을 넓힘.

○ **로테르담 도서관의 창조활동**

-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운영 : 3D 프린팅, 목공 등 도서관 직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에서 새로운 창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재료와 장비를 두는 공간만 분리하여 닫힌 공간으로 두고, 작업대를 도서관 내 개방공간으로 두어 이용자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나 원하는 때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로테르담 도서관의 지역융화**

- 로테르담시는 180여개의 국적자가 거주하며, 100여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로 자국민 중 인구의 20% 정도의 저학력자와 이주민을 위하여 편한 분위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외에도 책을 비롯한 도서관 자료를 매개체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1층 전시공간의 주요 전시 테마는 로테르담 지역 사람과 관련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전시하고 있음

□ 질의 · 응답

○ 대출이용자의 감소 추세에 따른 도서관의 대응 방안

- 사람이 만나는 공간으로 도서관 역할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 등의 자료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출수가 16% 감소했음에도 방문자수는 8% 증가 효과

○ 지역주민을 위한 특별한 정보봉사 사례

- 다문화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주민을 위한 네덜란드어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테이블 리더는 자원봉사자가 맡고 있음. 일주일에 17회가 운영될 정도로 수요가 매우 많음.
- 전시회의 테마를 로테르담 사람으로 선정하여 지역 출신 사람을 주제로 전시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체스'를 주제로 한 전시 등 같은 언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으며, 젊은이와 노인이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 만나는 주제로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음

○ 어린이를 위한 자료실 구성 및 서비스 운영

- 어린 자녀와 부모를 위한 자료실은 도서관 3층에 개방적인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자유롭게 앉고 누울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
- 자녀와 부모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무료 읽기 프로그램을 도서관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의 부모들이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
- 어린이주간에는 청소년 책과 청소년 작가가 중심이 되는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소감

- 최근 도서관의 역할 중 책을 비롯한 자료의 대출은 미미한 비중으로 변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로테르담 도서관은 도서관의 역할을 사람이 만나는 공간으로 정립하고 도시의 거실이자 발코니, 아이들의 놀이터, 소통과 담론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 도서관 내에 카페, 서점 등을 임대 유치하고, 홀과 극장을 활발하게 대여하여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주최하고 있음
- **지식과 정보, 문화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가 건전한 비판정신과 사회의식을 함양하고 활발하게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로테르담중앙도서관은 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독립된 주체로서 운영에 전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카페, 서점 등의 유치와 공간 임대, 유료 회원제 및 유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정적 수입을 충당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국내 위탁운영중인 도서관의 소속 지자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 공공도서관은 더 이상 책의 보관장소가 아닌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 네덜란드 공공도서관은 마치 집의 거실에 들어가듯 누구나 편안하고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공간으로 구성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공공도서관은 이제 개인 학습을 위한 학습실 개념을 타파하고 **지역주민의 소통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한다
- 책을 읽지 않는 사회의 변화는 다른 방식으로 읽기에 대한 도서관의 인식과 역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로테르담이 야심차게 선보인 에라스무스 프로젝트처럼 도서관 장서도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점유할 수 있음을 깨달았고, 도서관이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라 인식했다.

□ 관련 사진

도서관장, 홍보담당자, 4조 구성원

로테르담중앙도서관 전경

배관이 외부로 노출된 모습

음악 감상을 위한 좌석

무인 도서대출 데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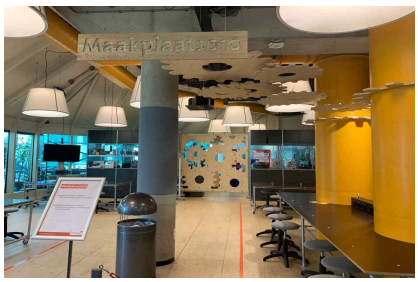
1층 로비의 지역인물 전시

어린이를 위한 자료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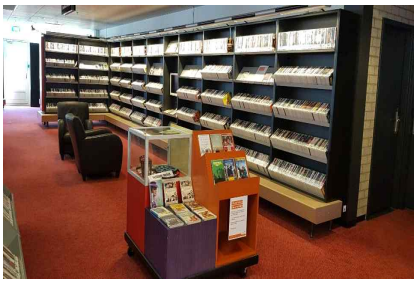
어린이 프로그램 전용 공간

유아와 부모를 위한 좌석

도서가 비치된 바퀴달린 서가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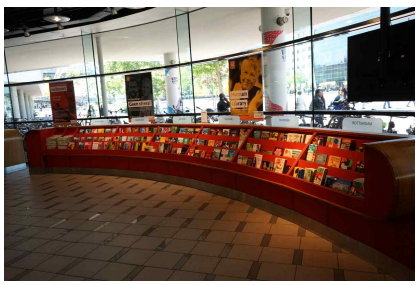
DVD 이용 코너

소규모 결혼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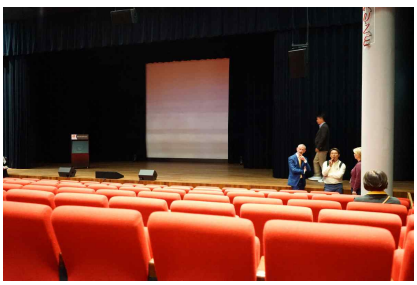
소극장 및 다목적홀

도서관 주요 조명

음악 감상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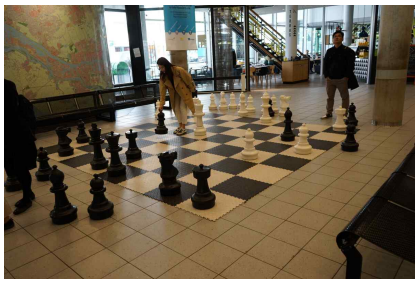


1층 로비의 지역행사 안내 팜플렛



수준 높은 극장 시설(대관가능)

로테르담중앙도서관 정문



대형 체스판 뒤로 보이는 카페

이주민을 위한 언어교육 과정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안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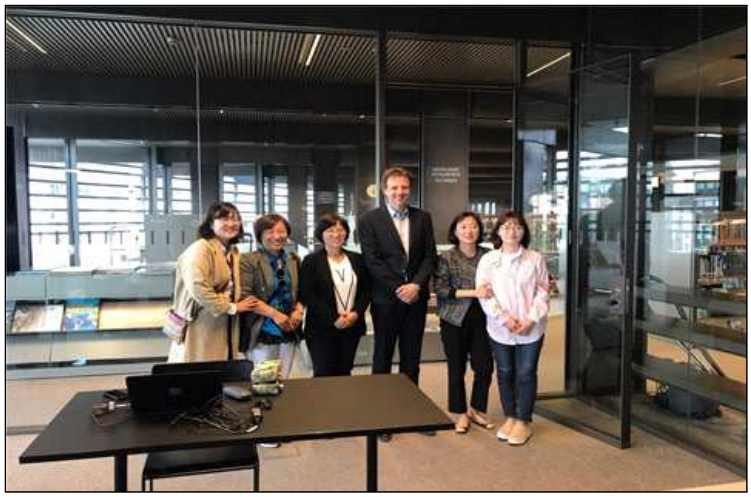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전시공간

2019년 도서관직원국외연수-1기

도서관장님 강의

데크루크 도서관
(Bibliotheek DeKrook)



문화재청 기록관자료실 강인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김이경
국립외교원도서관 김현주
전라북도 전주시립도서관 서혜옥
경기도 안양시석수도서관 조윤숙

5. 데크루크 도서관

○ **개　　요**

- 위　　치 : 벨기에 겐트
- 개 관 일 : 2017. 3. 10
- 규　　모 : 지하2층 지상5층 / 17,000㎡
- 건 립 비 : 7,500만유로(한화 1,000억원)
- 설　　계 : 건축사무소 Coussée & Goris 와 RCR Architects 공동설계
- 봉사인구 : 26만명
- 운영시간 : 월~토 / 10:00~19:00 (목요일 21:00)

○ **방문일정**

- 일　시 : 2019. 5. 16.(목) 10:00~
- 주　소 : Miriam Makebaplein 1, 9000 Gent, Belgium
- 면담자 : Krist Biebauw(도서관장), Nathalie De Neve (홍보 담당)

□ 주요특징

○ 대규모 도시 재생 프로젝트

-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치된 수변구역에 2,200톤의 스틸, 콘크리트로 도서관 재건
- 도시의 유서깊은 중심지와 아트쿼터(art quarter)를 이어주는 허브역할
- '도시의 발코니'처럼 개방된 건물로 2017년 BBC 아름다운도서관 선정

○ 도서관이 추구하는 목표

- 읽는 것에 대한 즐거움
- 정확한 정보의 전달 및 효율적 전달
- 기술적 혁신, 적응력, 활용성에 중점

○ 지역 도서관의 기능 확장

- 겐트시의 주도하에 겐트대학교, imec과 협력하여 기능 확장
- 인근 14개 도서관과 협력하여 상호대차 서비스 실시
-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 나노전자공학 및 디지털 기술연구센터 imec, UGent 조직공간 공유

□ 서비스공간구성

- ○ 0층 : 전시실, 카페, 도서예약, 자가대출반납기
- ○ 1층 : 소설, 음악, 영화, 언어, 만화 자료실
- ○ 2층 : 비소설자료실, 컴퓨터실, 교육컨설턴트/법률자문서비스센터
- ○ 3층 : 열람실, 서고, 사무실, 정기간행물실
- ○ 4층 : 사무실(imec연구소, 겐트대학, Cultuurconnect)
- ○ 지하2층 : 청소년자료실, 자가대출반납기
- ○ 지하1층 : 어린이자료실, 자가대출반납기

□ 서비스내용

○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도서시스템 운영**

-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서가 측면에 배치(datawall)함.
- 출판년도, 연령, 언어, 성별, 계절, 장르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개인 맞춤형 추천목록 제공**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도서 배달서비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도서자료 찾기 지원,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숙제도움서비스, 네덜란드어 미숙자에 대한 언어교육 등 자원봉사자 및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개인 맞춤서비스 제공

○ **자동분류반납시스템 운영**

- 무인 대출반납이 가능하며 반납된 도서는 자동으로 분류되어 3중 장치(벨트)로 이루어져 반납 시 생기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높임

○ **법률 및 교육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운영**

- 법률, 교육 등 전문적인 자문시스템을 통해 도서관 방문자에게 맞춤서비스 제공

○ **트윈세대를 위한 청소년 자료실 운영**

- 18세 이전의 트윈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채광이 들지 않는 지하에 위치해 외부와 독립된 느낌이고, 내 집 거실과 같은 편안한 인테리어

- 최소한의 권장도서, 만화, 잡지를 비치하고 게임기, 청소년 영화상영, 토론, 만남의 장소 등으로 활용
- 상대적으로 도서관 이용이 적은 청소년층의 관심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

□ 세부조사내용

○ 공모전을 통한 건축 설계

-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겐트의 건축사무소Coussée & Goris와 스페인 RCR Architects가 공동으로 설계,
- 도서관 이름이기도 한 “krook” 은 구부러져 있다는 의미로 도서관의 외형은 주변 스헬더 강가를 따라서 만들어져 위에서 보면 ‘ ┌ ’ 모양으로 디자인

○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

- imec 등 도서관에 상주하는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도서관에 필요한 더 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함
- 사회 기타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각기 다른 다양한 대중에게 도서관의 역할을 제공하고자 겐트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을 만들고자 함

○ 새로운 정보기술 및 디지털화 도입 (타 기관의 협업 결과)

- 도서관 건물 자체가 혁신 공간으로써 datawall(imec의 게시판), hot seat(열람실 빈자리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새로운 기술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활용함에 따라 **신기술의 베타테스터 역할 수행**
- 동영상 제작 스튜디오, 공예품 제작실, 연구소, 프로토타이핑 실험실 등 다른 도서관에 없는 다양한 시설과 공간이 존재

○ 디자인 및 공간적 특징

- 도서관 내부 어디에서도 전체를 볼 수 있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구조

- 계단은 숨겨진 공간이 아닌 도서관 내부에 위치하게 하고, 층간 이동 시 위·아래층이 동시에 보이도록 설계, 계단의 폭을 넓게 하여 만남의 장소로도 이용하는 등 독특한 이동 통로로 활용
- 각 층마다의 미팅룸도 오픈 유리로 디자인해서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

□ 질의 및 응답

○ 데크루크 도서관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지

- ‘세상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데크루크 도서관의 설립목적임 데크루크는 도서관인 동시에 기술적인 혁신과 연구 공간임을 인식하고 겐트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변화하는 것임
-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개발한 새로운 시스템이나 자원을 일반 대중들이 효과적이고 실용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서관 직원들의 역할임

○ 1,000억원의 건립비가 소요되었는데, 건축 관련 특이점이 무엇인지

- 건물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과 방음에 주안점을 두고 천정과 바닥에 방음재료 사용하였으며, 주재료인 유리, 철근, 콘크리트를 가공하지 않고 재료 그대로 사용함
- 도서관 외관을 덮고 있는 철근 수평 루버는 건물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열에너지를 활용토록 설계(여름에너지 저장해서 겨울에 난방으로 사용, 겨울 에너지를 저장해서 여름에 냉방활용)
- 벽면은 콘크리트 노출형으로 거푸집을 나무로 사용함으로써 나무결이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자칫 차가울 수 있는 콘크리트 벽을 자연에 가까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시공
- ‘도시의 발코니’라는 닉네임처럼 탁 트인 개방된 구조로 설계하여 도서관 내부에서 고풍스런 겐트시의 풍광을 볼 수 있어 관광명소가 됨

○ 겐트대학 등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협업 중인데 해외기관과의 협업도 진행하고 있는지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외 협업기관은 없으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협업 기관과는 추진하고 있음. 향후 개별적인 협업도 가능 하다고 봄

○ **개관 이후 2년의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독서인구 증가여부**

- 2017년 개관당시 하루 평균 2,500명의 방문이 있었으나 현재는 하루 6천~7천여 명이 이용하여 방문자수 늘었으나, 점차 1인당 대출 권수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
- 책 이외의 대체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 중

○ **윈터서커스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설명**

켄트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부로써 도서관 앞 옛날 서커스 공연장이었으나, 현재 쇠퇴하여 이용하지 않는 폐건물을 공공서비스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2017년 5월부터 시작하여 2020년 개관함.

지하콘서트홀, 카페, 옥상레스토랑 및 전시공간이 들어서게 되어 윈터서커스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본래의 기능을 되찾게 되면 더불어 도서관 이용률 또한 동반상승 할 것을 기대됨

○ **데크루크 도서관 건립의 효과는**

죽은 공간이었던 곳에 도서관을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이 모이고 활기있고 생동적인 장소로의 변화가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늘리는 긍정적 영향을 미침

○ **10년후의 데크루크 도서관의 모습**

데크루크 도서관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도서관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사전 설계단계부터 그 점에 역점을 두고 만들었음. 10년 후에도 사람들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면 도서관이 그 점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되고자 계속하여 변화하고 발전할 것임.

□ 시사점 및 소감

- 데크루크 도서관은 책과 노하우, 문화와 기술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지식, 문화 및 혁신을 위한 영감의 장소’이다. **일반적인 도서관에서 보지 못한 시설들을 비롯하여 건물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신기술을 실험하고 도서관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신기술의 베타테스터 역할을 하는 등 도서관과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

- 도서관 건물을 처음 본 순간부터 새로웠다. 철근과 유리로 이루어진 도서관이라는 점, 건물 주변이 물이라는 것도 신선했다. 전체적으로 차분한 느낌의 도서관이었다. 0층에 있는 대형안내판을 지나면 보이는 중앙의 넓은 계단은 앉아서 책도 보고 담소도 나누는 휴식공간이었다. 계단 벽은 유리로 되어 있어 언제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서가 윗부분은 불이 들어와서 꺼내지 않고도 어떤 책인지 알 수 있게 했고 비도서 서가는 서랍 열듯이 빼서 브라우징 할 수 있었다. 보존서고는 자동으로 서가사이를 열고 닫을 수 있고, 센서등을 달아서 사람이 있을 때 켜지도록 하고 있었다. 자동분류시스템은 넓은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설치하였는데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게 부러웠다. 반면 거의 모든 대출과 반납이 무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직원이 사서업무도 겸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사서 한 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멀티플레이어의 개념이 크지만 여기선 관심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직업인가보다. 앞으로 사서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De krook <u>is a place to read to live and to learn</u>. We believe that’s the only way to keep our library RELEVANT in the future. 라는 도서관장의 도서관 소개가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알고 그들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De krook도서관의 지향성을 잘 느낄 수 있는 공간 운영과 이에 맞추어 제공되는 다양하고 시도적인 서비스가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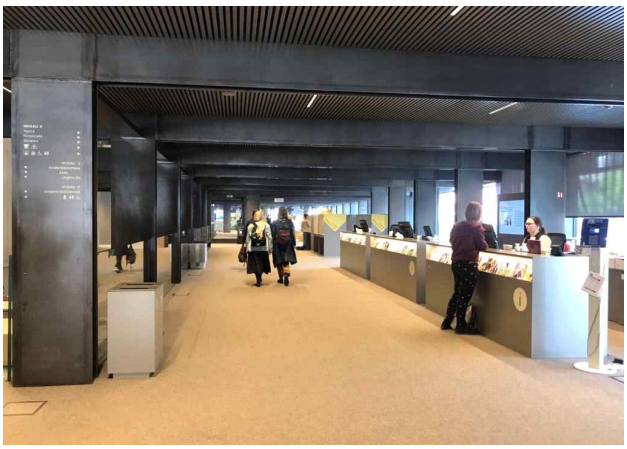
- 데크루크 도서관은 사람들의 도시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켄트대학과 나노기술 협업 단체인 이멕과 협업하여 도서관의 시설을 발전시켜 나가고 어떻게 대중과 만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연수 중 방문했던 네델란드의 도서관과 달리 전형적인 도서관 모습을 담고 있으면서 첨단의 기술을 반영한 도서관의 외형과 내부 시설은 다소 어둡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지하에 거대한 도서 분류기를 보면서 공간의 여유와 사람이 하는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 AI가 공공 서비스 영역에 접목 되었을 때 도서관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변모하게 될지 기대가 된다

- 전반적으로 벨기에의 데크루크 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이라는 공공도서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는 도서관이라고 판단된다. 도서의 대출과 반납, 자료의 보존 등 전통적 관점에서의 서비스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 도서관이라 할 수 있겠다. 오늘날 한국의 공공도서관들은 점차적으로 책보다는 문화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 더 많이 치중되는 추세이다. 스쿨7을 비롯하여 이번 연수기간에 견학한 대부분의 도서관들도 발레, 미술, 악기연주 프로그램에 정성을 들인다.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만 운영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사서가 있을 자리에 평생교육사가 더 적합할 것 같은 시스템이다. 실제로 이 지역 도서관들에서 사서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도서관학, 문헌정보학을 가르치는 대학도 없다고 한다. 미래에 사라질 직업 중 하나가 사서라는데 이미 사라진 직업이 된 것에 마음이 무거웠다. 과연 도서관의 가치는 무엇일까? 책 대신에 문화센터로 변모하는 도서관의 모습은 발전일까? 아니면 퇴보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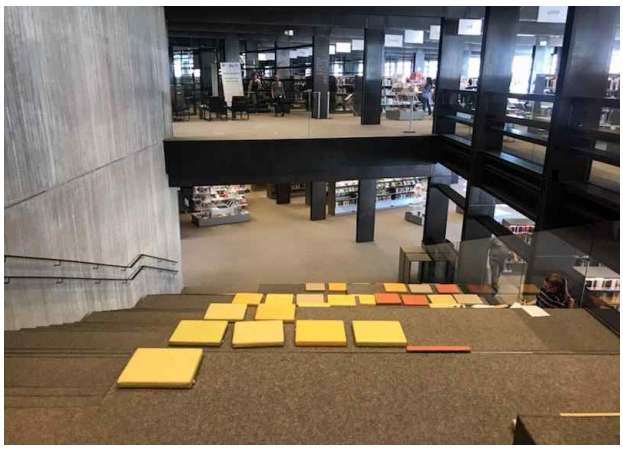
□ 관련 사진

도서관 전경

도서관 정문 앞, 윈터서커스(리모델링 중)



0층 인포메이션



내부계단(두개의 층이 보임)

이달의 테마전시(죽음)

예약도서코너

자료실 내 피아노

음악자료실

추천도서

소설자료실

잡지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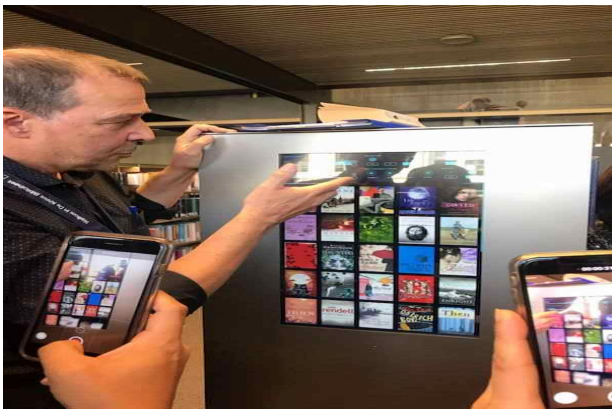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핸드폰충전기

도서관장님 강의

2019년 도서관직원국외연수-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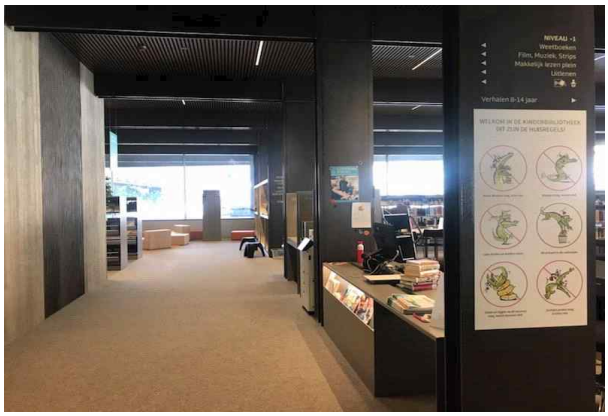
학생들로 가득한 비소음열람실

내부에서 보이는 켄트시 풍광



서가측판에 빅데이타활용 도서검색

법률자문실



어린이자료실

추천도서코너

어린이열람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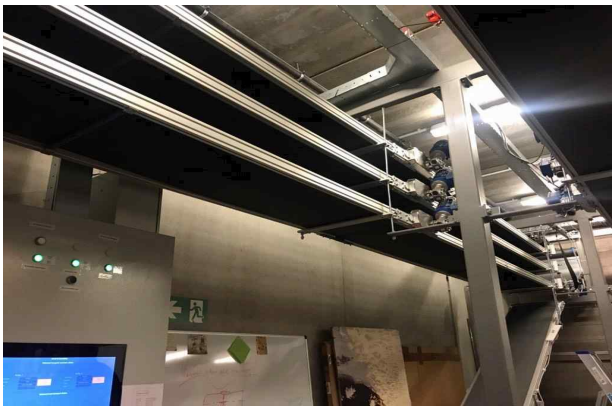
스토리텔링 코너

청소년자료실(지하공간)

청소년 권장도서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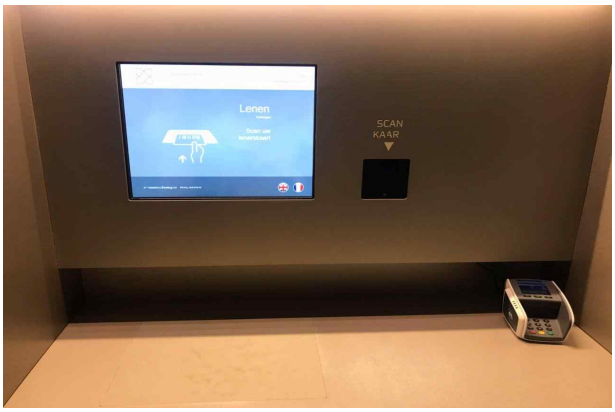
청소년잡지

영화상영



자동분류반납시스템(벨트)

반납바구니



무인대출반납기

보존서고

유토피아 도서관
(Bibliotheek Utopia)

경상북도교육청 청도도서관 권자영
외교부 노혜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설경숙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선영
국립중앙도서관 정봉숙

6. 유토피아

○ **개 요**
- 벨기에 알스트 지역 도서관이자 공연예술 아카데미
- 과거 군인자녀 교육기관이었던 건물을 KAAN Architecten에서 설계, 2018년 개관
- (예산) 건축비용 1,500만 유로, 내부 인테리어 300만 유로
- (인원) 1일 이용자 2,500~3,000여명 (알스트 지역 인구 85,000여명)
  도서관 직원 40명, 아카데미 직원 60명
- (서비스 대상) 알스트 지역주민

○ **방문일정**
- 일 시 : 2019. 5. 17.(금) 10:00~
- 장 소 : 유토피아(Utopia)
- 면담자 : Arnoud Van Der Straeten (도서관장)

□ 주요특징

❍ 유토피아는 도서관 그 이상의 의미

- 유토피아는 도서관 역할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교육과 미팅의 공간 등 지역 사회의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구성됨
- 과거 Aalst 지역은 사관학교 기숙사 건물과 수녀들의 페스트 병간호를 하던 공간으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던 성향과 도서관이 추구하는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마련됨
- 벨기에 Aalst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5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8년 6월에 개관함

❍ 공연예술 운영을 위한 건축학적 설계

- 건물 중앙은 도서관 공간, 외벽은 아카데미 공간으로 구성함으로써 외부의 아카데미 교육생을 중앙의 도서관으로 이용을 유도하는 구도로 설계
- 아카데미의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천장과 바닥 등에 소음 방지 자재와 방음문 등을 사용하여 최대 53 dB이하로 설계함
- 81% 친환경 건축으로써 지하 100m에 열저장소를 만들어 냉난방에너지로 활용

○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도서관 운영

- 도서관, 교육기관,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제공의 역할 수행
- 도서관직원 40명, 아카데미직원 60명 규모로 연간 500여개의 아카데미 프로그램 진행
- 대출이력이 적은 도서는 지역주민에게 판매(1 EUR), 수익금은 신착구입에 활용
- 일부 공간을 유료로 제공 및 임대하여 다양한 목적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

□ 서비스공간구성

○ 전체 공간 구성

- 중앙홀이 천장까지 열린 구조로 어느 층에서든 도서관 분위기 조망
- 각 층에 자료검색, 셀프대출반납시스템 설치 및 열람석(총 230석) 배치

○ 층별 구성

	도서	아카데미/기타 시설
2층	o 논픽션 - 일반, 인문, 지리 - 과학기술, 자연 - 여가, 사회, 육아 o 잡지, 만화, 게임	o 공용 PC - MS Office 설치 o 스터디룸 o 아카데미(악기연주실, 회의실 등)
1층	o 픽션 - 소설, 시, 언어	o 사무실 o 아카데미(댄스, 연극교실 등)
0층	o 아동(만14세까지) o 예술(특수사이즈 서가) - 미술, 악보 o CD & DVD o 기증도서(대형 서가)	o 카페 o 리셉션(안내데스크) o 셀프반납기 - 자동반납처리 이동 모습 관람 가능 o 유토피아 코너 - 인쇄기 전시 및 인쇄 체험 o 군악대, 수녀 인형 및 레고모형 전시 o 다목적실(공연장), 아트리움 o 아카데미(합주, 음악연습실 등)
지하		o 주차장 & 라커 o 재난용품

□ 서비스 내용

○ 도서관자료 대출 : 대출 이용은 무료, RFID 운영

- 대출 책 수 : 최대 총 25책

· 잡지, 게임, 테마책(카니발, 부활절, 크리스마스, 여행가이드 등) : 각 5책
· 신간 및 이용률이 높은 자료, 보드게임 : 각 2책(점)

- 대출 기간 : 4주(1회 4주 연장 가능), 단기 대출 : 2주(연장불가, 예약불가)
- 자료 반납 : 각 층 자료실 또는 셀프반납기 이용 가능(오전 9시 - 오후 10시)
  타도서관 자료 반납 가능

> * 자료 반납 시 자료의 완전성과 손상 여부 확인 : 이용자 자료 반납 후 5일까지 자료의 상태(손상된 CD, 빈 케이스 DVD, 책의 손상 여부 등)에 대해 책임 부여

- 자료 대출 관련 운영 서비스

자료예약 서비스	예약 된 자료 이용자에게 알림서비스 제공 예약된 자료는 10일간 보관 가능(1.5 EUR 비용)
상호대차 서비스	도서관 간 대출 트래픽(IBL) 사용(8 EUR 비용)
그룹 대출서비스	보육시설, 주거보호센터 등 단체 대상으로 실시

- 자료 이용 관련 요금

도서관자료 연체	자료당 0.5 EUR(최대 15 EUR - 초과 시 대출 금지)
자료복사	흑백(0.1 EUR), 컬러(0.5 EUR)
손해 및 손실 비용	분실 도난 : 자재비 + 가공비 약간 손상 : 수리비용 DVD 케이스 : 일부(3 EUR), 멀티(4.5 EUR) CD 케이스 : 1.5 EUR 보드게임 : 필수부분(게임비용), 교체부품(단가)

○ 유토피아도서관 분관 운영

- 4개 분관(Erembodegem, Herdersem, Nieuwerkerken, Ter Linden)을 통해 최대 25책 대출 가능
- 본관 도서관에서 대출 및 반납 가능

○ 온라인도서관(MyLibrary) 운영

- 자료 이용기간, 대출기간 연장, 희망자료 예약, 비치자료 제안, 연체료 납부 등
- 디지털신문서비스(GoPress) 접근 가능 : 자료 구독 중인 도서관 접속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

○ 기증자료 운영

- 지역 내 주민들의 기증자료 중심의 별도 서가 운영 및 자료 전시 : 1,500책
- 서가 형태 : 11m X 10m의 목재 서가 (도서관 외부에서 서가가 보이도록 설계)
- 미납본자료인 경우 국립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기증없이 자관에서 운영(대출 금지)
- 기증자에게 기증 배경과 기증자료 활용도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한국어 및 한국에서 발행한 자료 기증 시 수용 가능

○ 자료의 주제 분야 이미지화 운영

- 어린이와 청소년 등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서흥미 유발과 자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서가에 자료비치 시 자료의 주제 분야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책등에 핵심 키워드를 이미지화하여 부착, 운영함

○ 유토피아 독서클럽 운영

- 대상 : 플랑드르 전역 4세~16세 청소년(KJV)
  읽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KJML) 등
- 운영시기 : 9월말에서 4월말까지
- 운영방안 : 학년별로 6개 그룹으로 운영, 선정도서 8책을 읽고 독서 일지 등 작성, 4-5주마다 운영자와 미팅

○ 공연예술 아카데미 운영

- 대상 : 어린이, 일반인, 교사, 예술인, 방문객 등
- 운영 프로그램 : 음악, 연극・토론, 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운영
  ・음악 : 음악의 이해 및 악기 연주법, 밴드,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운영
  ・연극, 토론 : 연극 연습 및 연극 공연하는 공간으로 운영
  ・춤 : 발레, 댄스 수업에서 춤과 음악을 이해하는 수업 진행
  ・전시, 발표회, 연주회 및 연구 중심으로 운영
- 지원 사항 : 예술적 과정을 자극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기자, 연구원, 예술가를 지원

- 운영 평가 : 공연예술 아카데미를 통해 도시의 예술적 분위기 및 활기찬 환경 조성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 도모
- 비용 : 18세까지 청소년 : 77 EUR
  청소년 할인 : 53 EUR(두 번째 가족 구성원, 2개 아카데미 수강 시)
  18 ~ 24세 : 142 EUR, 성인 : 324 EUR

○ 학습 및 토론 등을 위한 공간 운영

- 학교 교과과정의 다양한 그룹 프로젝트 수업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도서관에서 제공 , 이용자 ID로 예약 가능
- 학생 대상으로 학습 및 토론할 수 있는 "스터디 룸" 운영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가 상승하면서 도서관 이용률 증가

○ 기타 운영 프로그램

- 공용컴퓨터 이용 : 1일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16대 운영)
- 도서관 이용 안내 공지
  · 방문객, 이용자 및 직원은 상호 존중하며 응대
  · 도서관은 모두가 즐거운 곳으로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를 방해하지 않음
  · 사용자는 도서관에서 도덕적으로 반하는 행동을 표시하지 않음 등

□ 세부조사내용

○ 유토피아 설계 시 3가지 중점 사항

- total integration & architecture
  · 설계/건축물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융화되도록 설계
  · 건물은 8,300㎡로 내부 공간을 활용한 시공으로 중앙은 도서관이고, 외벽은 아카데미로 설계하여, 아카데미의 소음이 도서관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

- local cultural heritage
  - **이 건물은 보관해야 할 가치가 높은 건물로 지역사회의 랜드 마크가 되길 바라면서 설계**
  - 이 건물이 하나의 유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건물 곳곳을 설계하여 반영하고 도서관이 추구하는 신구의 조화와 성향이 다른 집단이 하나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
- sustainability - BREEAM[2] CERTIFIED (excellent 81%)
  - 이 건물은 친환경 인증을 우수하게 받은 건물로 지하 100m 아래 열 저장소를 활용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설계

○ 유토피아 건물 명칭의 의미

- 지역적으로 유명했던 사관학교 기숙사와 페스트병을 간호하는 수녀들이 활동하던 곳으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성향이 다른 집단과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유토피아”로 이름을 지음
- “토마스 모어”의「유토피아」책을 출판한 사람이 Aalst 사람이라 또한 “유토피아”라 이름을 지음
-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회의실, 교육실 명칭도 저서에서 명칭을 차용해 활용함으로써 책을 토대로 문화 활동의 확장을 안내함

○ <토마스 모어와 유토피아> 코너 운영

- 0층 유토피아 코너에는 “토마스 모어”의 초상화와 유토피아 문양이 벽면에 걸려있고,「유토피아」책 출판 당시의 인쇄 장치가 놓여 있어 예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책을 출판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배치함
- 현재 디지털에만 익숙한 아이들에게 그 당시 책 인쇄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인쇄 체험을 진행하기도 함
- 초상화 맞은편에는 군악대 모습 인형과 검은 옷을 입은 수녀 인형이 다른 한쪽 코너에 각각 전시되어 있어 앞서 말한 성향이 다른 집단과 신구의 조화를 뜻하는 또 다른 유토피아적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음

2) "Buli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약자로 영국의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친환경 인증

○ 유토피아 도서관 공간

- 건물 중앙부에는 도서관 공간이 있고, 0층은 아동, 1층은 픽션, 2층은 논픽션으로 구분되며, 각 층마다 2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셀프대출반납 시스템이 비치되어 있음
- 벨기에의 대학생들이 대학도서관의 조용한 열람실 구조 보다 230개의 열람 좌석이 있고 함께 그룹프로젝트 등의 학습 및 토론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유토피아 도서관을 이용하기 시작함
- 도서관을 도시의 만남의 장소로써 방문자의 목적(재택근무, 그룹스터디, 기업미팅 등)이 다양하므로 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함
- 도서관 앞 작은 정원 의도는 비움의 미학으로 설계되었고,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환영하는 의미로 맞은편 건물을 컬러감 있게 색칠함

○ 유토피아 아카데미 공간

- 유토피아 외벽으로는 연극, 발레, 음악 등의 아카데미 공간이 있음
- 공연예술을 위한 아카데미의 소음이 도서관 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음에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하여 설계함
  · 방음이 되는 문을 설치하여 80 dB정도의 아카데미 소음이 53 dB이하로 감소됨. 방음문은 1개에 천만원정도 하며 총 60개(6억 소요)가 설치되어 있음
- 아카데미 대관료는 이용 주체에 따라 달라짐. 비영리/비상업적기관이나 사람은 1시간에 15 EUR 정도이고, 기업들은 100 EUR 정도임

□ 질의 · 응답

○ 다양한 유형의 공간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등의 실시 여부

-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지만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선진 도서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도서관의 변화를 인지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설계
- 업체 선정 시 도서관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요구사항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였고, 진행 단계마다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추진함

○ **공연예술 프로그램에서 시행하는 연극, 공연실황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안**
- 페이스북,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등을 통해 공연실황 서비스 제공
- 공연실황, 토론수업, 연극 프로그램 운영 시 서비스 운영에 대해 사전 동의 및 안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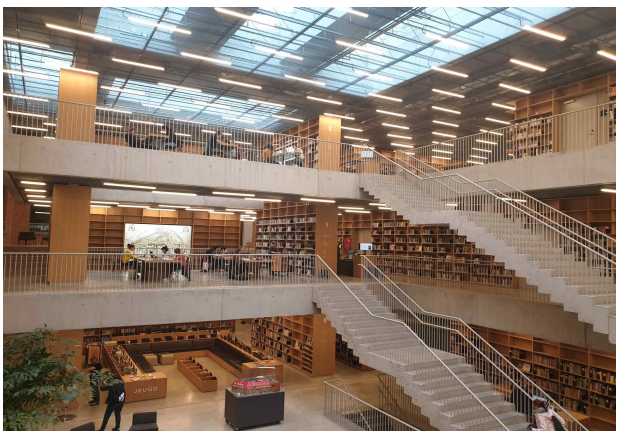
□ 시사점 및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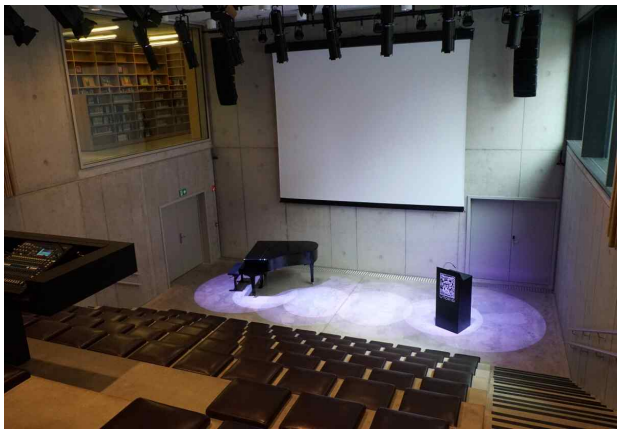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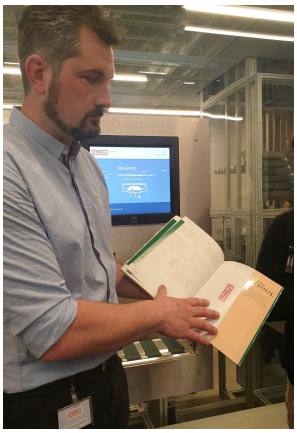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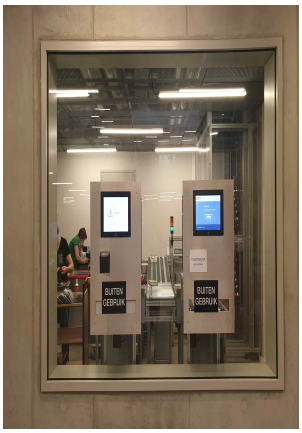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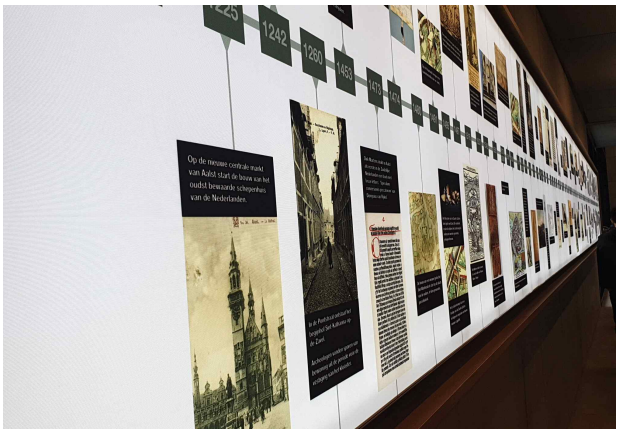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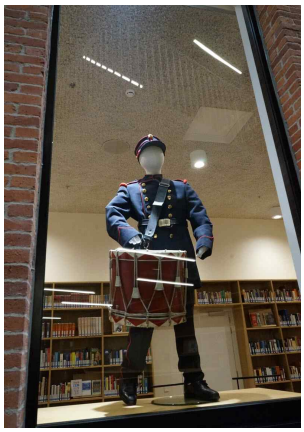
○ 도서관 신축 및 구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구관과 신관의 조화와 통일성을 유지하였고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이 책을 활용하는 독서진흥의 공간을 넘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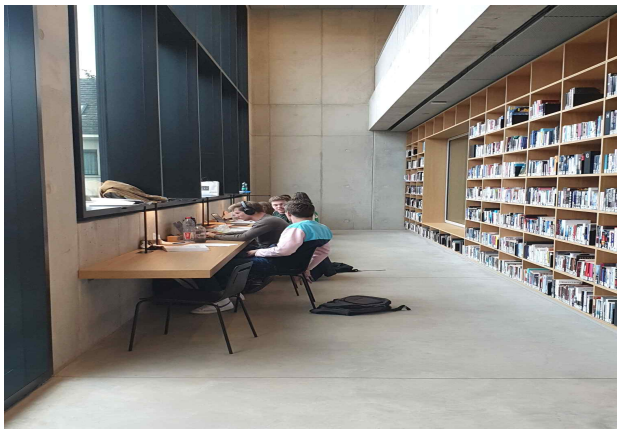
○ **도서관 트렌드에 대해 선진도서관 벤치마킹,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서관의 변화의 흐름을 직시하고 반영하여 도서관이 더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음**

○ **도서관 공간구성 시 사용 목적**에 맞는 공간 활용, 다양한 이용자층의 요구도, 독서 및 학습 공간을 위한 바닥과 천장재의 소음 감소 방안 등 **여러 요소들을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일관성 있게 검토하고 건축하여 도서관을 문화공간으로 극대화한 점이 인상적이었음**

□ 관련 사진

	
유토피아도서관 외관	유토피아도서관 내부전경

	 
다목적실	도서의 대출반납-셀프 디지털, 관장님의 설명
	
0층 주민기증도서 전시	유토피아도서관 역사를 알려주는 11m의 전광판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문양 전시 당시 도서 인쇄방식 체험 및 안내	과거 이 건물 사용자였던 수녀님과 사관생도(군악대) 인형 전시

음악실 문화센터	연극공연장 - 비영리기관 등 다양하게 대여
	
자유롭게 방문하는 도서관 이용자들	도서관장님 강의
서가에 설치된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는 소방시설 (방화벽 옆에 소화시설 비치)	2019년 도서관직원국외연수-1기

쿡앤북
(Cook & Book)

광주과학기술원 중앙도서관 노윤희
국립중앙도서관 송영기
제주특별자치도 우당도서관 장보미
충청남도 공주시 최위호

7. 이색서점 “쿡앤북”

○ **개요**

-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점과 식당, 카페 등 문화예술을 융합한 시설로 구성
- 1년 매출액 약 70억원
- 직원수 : 70여명
- 주요방문자 : 브뤼셀에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 업무에 지친 사람들, 바쁜 일상으로 스트레스 받는 도시인들이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기 위하여 방문
- 서비스 품목 : 식사 및 서적 판매
- 면적 : 1,500㎡ (9개 구역)

○ **방문일정**

- 일 시 : 2019. 5. 18.(토), 10:00 ~
- 장 소 : 쿡 앤 북
- 면담자 : Claudia Trucco(홍보 담당) 등 3명

□ 주요특징

○ **서점과 식당, 카페 등 문화예술을 융합한 시설**

- 기존 서점의 공간 구성에서 벗어나 서점에서 일상적인 식사, 독서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컨셉을 구상하여 가장 일상적인 식사와 지식문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지식과 미각을 만족시키며 시각적이며 청각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공간 배치
- 공공 서비스 구역으로써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활동 공간의 역할 수행

○ **전체 공간을 9개 섹션으로 나누어 독특한 공간 구성**

- 현재 서점은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된 공간으로 전체면적 (1,500평)을 임대하여 9개의 주제로 서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 여행, 영문학, 어린이, 요리, 음악, 미술 등 총 9개의 영역으로 구성
-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하여 각 영역마다 고유의 권한을 갖고 운영
- 각 코너마다 고유한 주제가 있어 공간도 주제에 맞게 디자인 되어 있음

□ 서비스 공간 구성

○ 영문학(English literature)

- 영문학 도서의 종류와 장르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 영국 국기 유니언잭으로 디자인된 천장의 램프 갓이 특징
- 아동서적, 범죄서적, 쿠킹서적, 논픽션 서적 등

○ 요리(Cuccina) & Housing

- 식당과 함께 운영되는 공간으로 요리책, 집에 대한 관련 도서로 구성
- 매주 Sunday brunch를 운영하여 도서 진열대를 식사 테이블로 바꿔 색다른 이벤트 제공

○ 만화(Comic book)

- 9개 주제의 공간 중에서 마지막으로 오픈된 주제의 공간이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매출도 가장 높은 공간으로 인기 있는 분야
- 다양한 만화책과 만화 속 주인공들로 가득 채워진 공간은 아이들은 물론이고 성인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
- 전 세계의 유명 만화책을 보유하고 있음

○ 여행(Travel)

- 공간을 찾는 방문자가 여행을 가고 싶어지도록 여행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공간을 구성함
- 여행 가이드 서적, 지역 사진집, 지질 관련 지리학적 도서, 여행 작가 관련한 서적 등

○ 미술(Art)

- 고전, 건축, 설계 등의 미술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작품도 전시하고 있음
- 미술 작가에 관련한 서적도 보유하고 있어 다방면으로 알 수 있음

○ 음악(Music)

- 와인바와 함께 구성되어 있어 음악을 즐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 CD, LP, 음악가 서적 등이 주로 구성되어 있고 작은 음악회나 쇼케이스도 가능하도록 공간 마련
- 지역 예술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공간 디자인에 적극 활용함

- 건물내부가 구역별로 나뉘어 있음

○ Green House

-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 사회, 정치, 컴퓨터, 가드닝(Gardening) 등 일상적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의 서적으로 구성
- 넓은 공간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빔 프로젝터, 스크린도 마련되어 있어 컨퍼런스 및 회의 장소 등 다목적 사용 가능

○ 문학(Literature)

- 상당수가 불어 서적이거나 전 세계의 책을 불어로 번역한 책으로 구성
- 역사 서적 및 벨기에 작가 서적도 보유하고 있음

○ 어린이(Children)

- Book Reading 수업을 운영하며 매주 수요일 오후에 진행
- 어린이를 위한 선물 코너도 마련되어 있어 이 공간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음
- 도서 배치 순서는 어린이의 연령 순으로 이어져 있어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쉽게 공간 배치함

□ 세부조사내용

○ 공간 담당 직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 각 분야별 공간의 담당직원을 채용하여 공간에 대한 권한과 함께 책임감과 자율성을 부여함
- 담당 직원은 맡은 공간의 도서와 상품을 구매하고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공간마다 진열 방식뿐만 아니라 구성 방식도 직원에 따라 고유한 방식이 있어 모두 색다른 공간 구성이 가능함
- 담당 직원의 채용 조건은 학사이상의 학력과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내용

- 컨퍼런스, 미팅, 결혼식, 생일파티, 작가 사인회, 화가 초청 행사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지역 예술가를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서점 내 공간을 장식하고 전시하여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도록 함
- 지역 주민들이 모임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 마련

□ 시사점 및 소감

○ 식사와 미팅을 하면서 서적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소비 공간을 형성하였음

○ 서적판매 구역이 차별성 보이고 담당직원에게 전문성과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미술 조형물과 서적구역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소품을 이용하여 서가를 배치함으로써 예술적이며 지적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인테리어 및 공간 배치를 실현했음

○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의 다양한 수요층에게 호기심과 공감을 일으키는 마케팅 방식이라고 생각됨

○ 21세기 다양한 지식정보로 소통하고 융합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화와 식당을 결합한 문화소비 마케팅이라고 생각됨. 설립자인 벨기에 여성 데보라 드리온의 꿈이 실현된 쿡앤북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 및 문화소비의 경향을 잘 파악한 식당서점 이라고 생각됨

○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쿡앤북 서점은 서점 내에서 먹고, 읽고, 산책하는 등의 일상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지역 주민의 중요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음

○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져 주 활동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이며 서점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구성하여 편안하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함

□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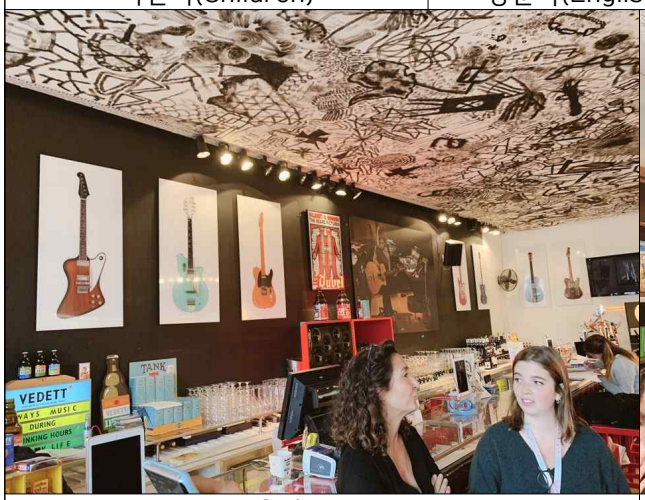
2019년 도서관직원국외연수-1기

서점 건물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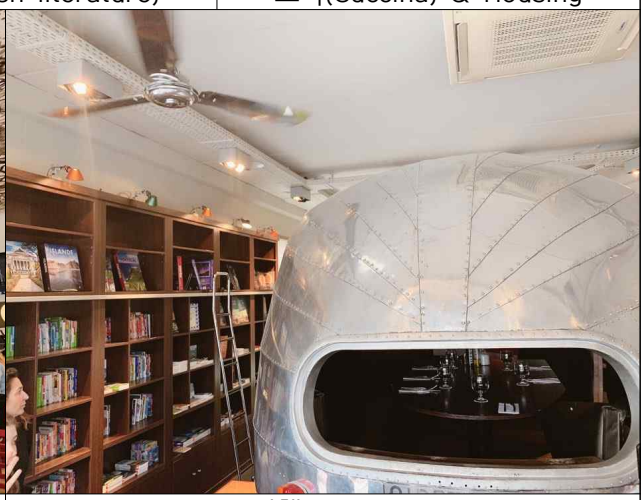
어린이(Children)

영문학(English literature)

요리(Cuccina) & Housing



음악(Music)
- 지역예술가 지원을 위한 공간



여행(Travel)
- 가장 인기있는 트레일러 좌석

참고1 교육생 한줄 소감

번호	성명	소 감
1	강윤정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공연, 전시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소통 공간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인상 깊었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과 달리 유료 회원제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특이했다.
2	강인순	한국 도서관에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대출·반납건수 및 이용자수의 감소를 네델란드와 벨기에 도서관에서도 인지하고, 위기의식을 느껴 상황분석을 통해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등 노력하는 점과 도서관건축설계부터 서비스까지 항상 이용자 관점에서 고려하고 배려하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음
3	곽민정	다양한 콘텐츠와 편의시설이 공존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도서관이 중심에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4	권연주	(School7) 작은 소도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사람을 품은 작지만 큰 도서관
5	권자영	유토피아도서관은 지역사회와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 함께 성장해가고 있는 도서관으로 마치 우리가 꿈꾸어오던 오래된 숙원사업을 완성한 것처럼 느껴짐. 지금 경북 청도 지역에서 새로운 도서관을 짓고 완성해야할 현 시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져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	김경호	네덜란드 연수는 책을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네덜란드 공공도서관의 현대식 건축과 사용자 친화적인 공간 구성,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 도모는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7	김이경	방문했던 도서관마다 저마다의 특색이 있었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이었다. 집 거실같은 열람공간을 만들기 위해 비치한 가지각색의 서가와 책상, 서가, 인테리어는 정말 부러웠다. 짧은 연수 기간이었지만 그 곳에서 많은 것을 보았고 느꼈다. 함께 한 모든 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진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8	김장훈	도서관을 확장하면서 없어진 공간에 대해 "비록 지금은 없어졌지만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남겨둔 카페트 사진은 그 의미를 떠나 예술적 디테일의 진수를 보여줌.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역사를 품은 school7 도서관
9	김주란	개관시간에 맞추어 기다리던 사람들이 우르르 도서관에 들어간다. 방문자를 환대하는 로비의 분위기, 중앙의 에스컬레이터, 카페공간으로 안락하게 꾸며진 공간, 수집되어 꽂힌 지역의 다양한 리플릿 정보지들을 보면서 도시의 거실로 도서관을 말하는 이 지역사람들의 정서를 단박에 이해할 수 있다. 방문한 모든 도서관의 로비는 공간자체로 방문자를 환대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지역주민을 맞는다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연수 내내 늘 로비에서 든 생각이었다.
10	김현경	네덜란드 도서관의 변화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시에 공간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번호	성명	소 감
11	김현주	도서관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잘 느낄 수 있는 공간 운영과 이에 맞추어 제공되는 다양하고 시도적인 서비스가 인상적이었다.
12	노윤희	ㅇ 도서관의 이용자 친화적 공간구성과 건축미는 지역공동체 주민과 국내외 방문객의 유인요소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 ㅇ 이용자와 소통을 통해 도서관 설립부터 운영정책에 반영하여 복잡한 행정절차와 제약조건이 있는 우리의 모습과 대비되어 인상 깊었음. ㅇ 도서관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구성을 통해 실제 이용자들에게 창의성, 유연한 사고능력, 판단력 향상 등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소중한 기회였음.
13	노은미	강연과 매체에서만 보던 도서관을 실제로 방문하여 공간을 둘러보고 담당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이번 연수는 앞으로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좋은 경험이자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14	노혜영	도서관의 역할 다변화와 유료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통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 가능할지 그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15	박은주	(School7)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어 지역 주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서관이 되기까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따뜻하고 편안한 도서관
16	서혜옥	도서관의 안락한 의자와 조명은 마치 갤러리를 방문한 듯 했다. 내가 생각하는 선진국은 4차 산업 혁명을 기반으로 전체가 디지털화 되어 있는 도서관이었다. 그런데 방문하는 도서관마다 아날로그적 감성이 살아 있었다. 방문객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으로 안내를 시작한다. 콘크리트 벽면에 나무를 대어 나무의 결을 살려 놓았고, 셀프 대출대를 콘솔처럼 만들어 거실의 오래된 가구처럼 전혀 어색하지 않게 배치되어 있었으며, 시민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도서관에서 결혼식을 한다. 전에 있던 건물에 덧대어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고 그들의 공간과 시간을 보존하고 있었다. 도서관은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140년 전 듀이가 만든 분류기호는 사라지고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문자를 분류기호로 쓰고 있었다. 알타미라 동굴 그림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도 그림만 보면 무슨 책이 배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사물과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공간에 스며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도서관을 보고 배운 것뿐만 아니라 감성 충만한 선진문화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감사하다.
17	설경숙	관리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써의 공간구성과 아카데미를 보며 한국의 나아가야할 미래의 도서관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18	손주미	모든 이들의 거실인 School 7, 빠름보다는 느림으로 모든 이의 의견을 수용한 소통의 美를 가진 무엇이든 모든 것이 가능한 멋진 도서관.

번호	성명	소 감
19	송영기	ㅇ 네델란드 및 벨기에 도서관 연수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도서관의 모습을 통하여 한국의 도서관이 나아갈 바를 모색할 수 있었음 ㅇ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살아가는 네델란드와 소국인 벨기에의 모습을 보면서 북유럽국가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준열사가 순국한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 암스테르담의 안네프랑크 집, 브뤼셀의 EU본부 등을 보면서 정치와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20	안종렬	도서관의 건축에서부터 운영까지 지역과 사람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인드와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 전국에서 모인 도서관 직원들과 함께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도서관, 그리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21	안중현	특이하고 예술적인 건축물과 활용성, 실용성의 조화로움을 느낌
22	양선영	이번 국외 도서관 연수를 통해 도서관은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보존해야하는 문화유산으로 여길 만큼 도서관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열정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23	유희영	공공도서관이 전통적 역할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매력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했으나, 더불어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사서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할지 고민되는 지점이기도 했다.
24	윤관규	도서관이 '거실(Living room)'로서 지역사회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하는 트렌드의 변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5	이미정	지역공동체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서관의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26	임인숙	국내와는 전혀 다른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기능 시스템을 통해 우리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음
27	장보미	ㅇ 네덜란드와 벨기에 공공도서관은 '거실'과 '광장'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ㅇ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만나는 공간,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자 하는 도서관의 모습은 마치 내 집의 편안한 거실, 우리 지역의 오래된 광장의 역할을 도서관으로 옮겨 온 듯합니다. ㅇ 공간의 목적과 구성에 따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도 달라지며 그 공간은 더욱 자유로워진다고 느꼈습니다. ㅇ 이번 도서관 견학을 통해 도서관의 역할과 존재의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8	장효승	강연, 공연, 전시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을 도서관 중심에 배치하여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 강조. 상업공간인 카페를 건물 테라스에 마련하여 열람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공간 구성. 도서관을 독서만 하는 공간이 아닌 다양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지역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 상승.

번호	성명	소 감
29	정봉숙	도서관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모습을 통해 도서관의 기능 확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책을 토대로 하는 문화 영역의 확장하는 모습에서 지켜야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스토리텔링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0	조윤숙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의 편의와 무관하게 결정되어 후미진 곳에 자리 잡는다. 그리고는 이내 수험생들을 위한 독서실로 전락한다. 이번에 방문한 도서관들은 하나같이 동네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최고의 디자인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도서관에서 만난 그 곳 주민들. 책을 매개로 도시의 다채로운 삶을 그려내는 모습들은 왠지 하나같이 여유가 있어 보인다. 도시의 거실이자 안식처가 되고 있는 그들의 도서관을 보며 감탄과 탄식이 교차한다.
31	진민들레	(School7) 마치 '내 집의, 내 거실에서' 책을 보는 느낌으로 구성한 도서관의 의미 있는 공간들도 좋았지만 인터뷰 내내 밝은 얼굴로, 도서관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표정을 보면서 '참 행복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어 더 부러웠던 도서관
32	채명만	이번에 방문한 네덜란드도서관들은 외부 건축물과 내부 구성 및 장식들이 상호간으로 조화를 이루어 예술적 감각으로 디자인 되어 전반적으로 도서관으로서 이용자들에게 대단한 만족감을 주는 장소로 보여졌다. 특히 자동화된 대출, 반납시스템 및 컨베이어 운영시스템, 화재방지시스템 등에도 많은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자동화된 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
33	최위호	ㅇ 도서관은 "모든 이의 지식(행위)이 생산, 유통, 향유되는 복합문화정보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ㅇ 이번 도서관 해외연수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각 도서관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고 즐겁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나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역력히 보여 주었고, ㅇ 또한, 도서관을 통해 "책, 음식, 세미나, 아이와 엄마 놀이공간 등 이용하고자 하면 어느 것이든 할 수 있도록 한사람 한사람 안내해주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34	한이정	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당국과 시민, 단체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건축과 운영방식 등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를 통해 도서관을 짓고 운영하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사례는 앞으로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좋은 모델이었다.

참고2	도서관직원국외연수 관련 “School7” 의 홈페이지 게시글

Mijn gegevens | Reserveren & Verlengen | Hoog contrast | Zet voorlezen aan

de Bibliotheek
KopGroep Bibliotheken

Home | Boeken | Muziek en film | E-books | Activiteiten | Jeugd | Educatie | School 7 | Digitaal | Taalhuis

Zoeken in de catalogus
Zoeken binnen de site
Waar ben je naar op zoek?
Vind

Buitenlands bezoek

Gepubliceerd op: 16 mei 2019 15:57

Na het winnen van de Public Library of the Year Award krijgen we in School 7 bezoekers van over de hele wereld over de vloer.

Maandagmorgen 13 mei stopte er een bus met 35 bibliothecarissen uit Zuid-Korea voor de deur. Ze wilden van alles weten over Nederlandse bibliotheken en over School 7 in het bijzonder. Gelukkig hadden ze een tolk bij zich.

Het is heel bijzonder dat al die (internationale) aandacht niet verstomt, dat hadden we nooit kunnen voorzien. Vorige week was er een groep Duitse collega's en na de zomervakantie komen de Fransen. En er zijn al groepen uit Noorwegen, Denemarken, Estland, Tsjechië en Saba naar Den Helder gekomen om de bibliotheek te zien. Daarnaast ontvangen we veel bezoekers uit Nederland. Toeristen die met de camper op Willemsoord staan, die met een 'vrije reis' van de NS naar de Noordkop reizen en Helderse mensen die hun vrienden en familie meenemen naar School 7.

Erg leuk al die bezoekers. Niet alleen voor ons als bibliotheek, maar ook voor Den Helder. Want meestal gaan die mensen daarna ergens lunchen, lopen ze nog een rondje over Willemsoord of gaan ze de stad even in. Alleen de Koreanen niet, die gingen na hun bezoek door naar een ander Nederlands hoogtepunt: De Keukenhof.

“IFLA 올해의 공공도서관 수상 이후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각국의 방문객이 급증하였음을 알리는 기사, 특히 5월 13일 한국에서 온 사서들은 School7을 포함한 네덜란드 도서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했다고 언급함”